

## I. 신라의 성립과 발전

1. 건국신화와 시조신화
2. 성립과 발전

## I. 신라의 성립과 발전

### 1. 건국신화와 시조신화

신라의 神話로는 朴赫居世 신화 · 昔脫解 신화 · 金闕知 신화 등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등에 실려 있다. 박혁거세 신화는 始祖神話이면서 建國神話이기도 하며, 석탈해 신화와 김알지 신화는 시조신화의 의미만 갖고 있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이지만 인간들이 자기들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 낸 이야기이며,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신화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신라의 신화는 신라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건국신화는 역사성이 농후하며 동시에 당시의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상징적 측면과 아울러 역사적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신화의 해석은 사회생활 연구와 함께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sup>1)</sup>

종래에는 신라의 신화를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단지 허황된 이야기이거나 원시적인 신앙과 관련시켜 이해하였다. 또한 天降신화와 卵生신화를 가지고 북방문화와 남방문화로 나누는 도식적인 이해를 위한 자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sup>2)</sup> 또는 일률적으로 天神족과 地神족의 결합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sup>3)</sup>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고고학적 발굴성과와 인류학의 도입으로 고대사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진전되면서 건국신화를 국가형성과 관련시켜 보게 되었다.<sup>4)</sup> 물론 신화의 내용 모두를 긍정하고 신빙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역사적 반영으로서 이해하자는 것이다. 신화의 구조와 내용을 역사적 사실과

1) 金貞淑, 〈建國神話 研究와 外國理論의 導入〉(《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11, 1990), 348쪽.

2) 三品彰英, 《三品彰英全集》 3(東京; 平凡社, 1971), 531쪽.

3) 金哲垸, 〈新羅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 下(《歷史學報》 2, 1952), 95쪽.

4) 김영하, 〈삼국 및 남북국시기의 사회적 성격〉(《한국사》 3, 한길사, 1994), 62쪽.

관련시켜 신라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신라문화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박혁거세 신화

박혁거세 신화는 《삼국사기》·《삼국유사》·《帝王韻紀》 등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먼저 《삼국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高墟村長 蘇伐公이 陽山 기슭을 바라보니 蘿井 옆 수풀 사이에서 말이 꿇어앉아 울고 있으므로 가서 보니 홀연히 말은 보이지 않고 다만 큰 알이 있어 이를 가르니 어린아이가 나왔으므로 데려다 길렀다. 십여 세가 되자 뛰어나고 夙成하여 6部人이 그 탄생이 신이하였으므로 높이 받들었는데 이에 이르러 세위 임금을 삼았다. 辰人이 瓠를 杵이라 하므로 처음의 큰 알이 호와 같아 박을姓으로 삼았다. 居西干은 辰言으로 王이다(혹은 貴人의 칭호를 이른다)(《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始祖 赫居世居西干).

고허촌장 소벌공이 바라본 양산은 지금의 남산인데, 남산은 일찍부터 신라인들의 성스러운 장소였다. 불교가 수용된 후 특히 통일기 이후 많은 불교미술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은 본래부터 이곳이 신라인에게 성스러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토착신앙의 성소였던 이곳에 불교적 조형물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마치 이것은 天鏡林이나 神遊林에 興輪寺와 四天王寺가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로 현상이다.<sup>5)</sup>

이 신화의 현장에는 우물이 있는데 이것은 關英의 등장에도 나와 이로써 우리 고대사회의 井泉信仰을 알 수 있다.<sup>6)</sup> 또한 우물 옆의 수풀은 신라의 樹木信仰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前佛七處伽藍의 천경림·神遊林, 《삼국사기》祭祀志에 나오는 文熱林 등에서 보듯이 신라의 수목신앙은 매우 보편적이었다. 이는 김알지 신화에서도 볼 수 있는데 김알지가 태어난 곳이 바로 鷄林이다. 그리고 신라 金冠에 보이는 나뭇가지 모양 장식을 통해서도 알 수

5) 崔光植, 〈新羅 上代 王京의 祭場〉(《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6, 1995), 71~73쪽.

6) 李丙燾, 〈韓國 古代社會의 井泉信仰〉(《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782쪽.

있다.<sup>7)</sup> 신라 금관의 조형이 시베리아 샤먼의 관이라는 견해도 있다.<sup>8)</sup>

여기서 신화의 현장이 된 산·우물·수풀은 모두 신라인들의 현실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신이 강림할 때 산의 나무를 통해 내려오는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sup>9)</sup> 桓雄이 내려온 太白山頂 神檀樹와 金首露王이 내려온 龜旨峰도 마찬가지이다.<sup>10)</sup> 혁거세의 등장을 알리는 말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였으며, 말에 대한 이러한 사상은 신라의 마문토기·마형토기와 함께 신라 지배층의 문화적 성격의 일면을 나타내 준다.<sup>11)</sup> 天馬塚의 天馬圖도 혁거세 신화와 관련시켜 보았으나 최근 그림의 동물이 말이 아니라 기린이라는 새로운 견해가 발표된 바 있다.<sup>12)</sup> 여기서 말을 박씨 토렘으로 보는 견해<sup>13)</sup>가 있으나 말은 그야말로 메신저의 역할이지 그 자체가 신화의 주인공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신라의 발전과정을 원시적인 단계로 보고 부족사회에 나타나는 토렘으로서 박씨족의 말, 김씨족의 닭으로 인식한 것이다. 박혁거세 신화의 주인공은 하늘과 관계를 가진 존재였다.<sup>14)</sup> 김알지 설화에서도 닭은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의 등장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에 불과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오히려 부족사회의 단계를 극복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신화의 주인공은 큰 알로서 이는 흔히 난생신화로 보아 남방문화의 신화로서 이해하기도 하였다. 천강신화는 北方型 신화이며 난생신화는 南方型 신화라는 것이다.<sup>15)</sup> 그러나 부여와 고구려의 신화도 난생신화의 요소가 있으며, 신라와 가야의 신화도 천강신화의 요소를 갖고 있다. 우리 나라의 건국

7) 朴普鉉, 〈樹枝形 立華飾冠 型式分類 追補〉(《大丘史學》 32, 1987), 1쪽.

8) 張壽根, 〈神話學에서 본 韓國文化의 起源〉(《文化人類學》 2, 1969), 16쪽.

9) 이필영, 《샤머니즘의 종교사상》(한남대 출판부, 1988), 89쪽.

10) 龜旨峰은 ګ을 하는 봉우리인 ګ峰을 한자로 음차(구지=ګ)한 것이다.

11) 張志勳, 〈建國神話에 대한 一考察—高句麗·新羅를 中心으로〉(《釜山史學》 19, 1990), 15쪽.

12) 李在重, 〈三國時代 古墳美術의 麒麟像〉(《美術史學研究》 203, 1994), 21~25쪽.

13) 金哲堧, 〈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上(《歷史學報》 1, 1952), 27쪽.

14) 金和經, 〈新羅建國說話의 研究〉(《民族文化論叢》 6, 嶺南大, 1984), 4쪽.

15) 三品彰英, 앞의 책, 531쪽.

신화는 천강신화와 난생신화의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천강신화의 요소만이 있는 것은 단군신화로서 지역적인 차이가 아니라 시대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천강신화적 요소가 앞선 시기에 나타나고 난생신화적 요소가 보다 늦은 시기의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적일 것이다.

어린이가 태어나 데려다 길렀는데 십여 세에 이르자 뛰어나고 숙성하여 6부인이 그 탄생의 신이하였으므로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다는 것을 볼 때 유이민세력과 토착세력 사이의 일정한 관계 속에서 국가가 형성되고 임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신화의 천강적 요소와 난생적 요소의 신이함이 바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사실 혁거세를 추대한 6부인들의 조상들도 모두 천강신화를 가지고 있다.<sup>16)</sup> 關川 楊山村長 謁平은 瓢巖峰에, 突山 高墟촌장 蘇伐都利는 兄山에, 茂山 大樹촌장 俱禮馬는 伊山에, 鶯山 珍支촌장 智伯虎는 花山에, 金山 加利촌장 祇沱는 明活山에, 명활산 高耶촌장 虎珍은 金剛山에 내려왔다. 이와 같이 6부의 시조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자제들을 거느리고 關川가에 모여 덕이 있는 자를 임금으로 삼고 나라를 세우고자 한 것이다. 혁거세가 이들과 다른 점은 난생이라는 점이다. 그 성을 박으로 삼은 것도 그 큰 알의 모습이 표주박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6부의 시조들도 천강신화를 갖고 있으나 혁거세는 천강적 요소와 난생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또한 그 신이함을 말이 증명하였으며, 새와 동물들이 따라오며 춤을 추었다.

혁거세의 신이함을 더해 주는 것이 알영의 등장과 神聖婚이다.<sup>17)</sup>

5년 춘정월에 용이 關英井에 나타나 오른쪽 갈빗대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 老嫗가 보고 이상히 여겨 데려다 길렀는데 이름은 우물 이름을 따서 關英이라 하였다. 자라자 德容이 있어 始祖가 이를 듣고 들리어 왕비로 삼으니 어질고 내조를 잘하였으므로 당시인들이 二聖이라 불렀다(《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始祖 赫居世居西干).

1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三國遺事》권 1, 紀異 2, 新羅始祖 赫居世王조에 나타나 있다.

17) 金烈圭, 《韓國神話와 巫俗研究》(一潮閣, 1977), 53쪽.

혁거세의 왕비가 된 알영이 춘정월 용의 갈빗대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매우 신이한 것이다. 또한 용이 알영 우물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혁거세의 탄생의 경우도 양산의 나정 우물과 관련이 있어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용과 우물은 물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농경생활을 의미한다고 하겠다.<sup>18)</sup> 혁거세 17년(B.C. 41) 왕이 6부를 순행하였는데 왕비 알영이 따랐으며 農桑을 장려하고 땅의 이로움을 다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알영을 이상히 여기고 데려다 길른 노구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무당이였다.<sup>19)</sup> 석탈해를 데려다 길른 해변의 노구 阿珍義先도 마찬가지로 무당이였으며 이 노구는 왕실과 관련된 중요한 일에 관여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신이한 존재인 알영을 들리어 왕비를 삼음으로써 혁거세의 신성성은 더욱 높아져 이 두 사람을 二聖으로까지 부르게 되었다. 알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자세하다.

당시 사람들이 다투어 축하하며 지금 天子가 내려오셨으니 마땅히 덕이 있는 여자를 찾아 배필로 삼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날 沙梁里 關英井가에 鷄龍이 나타나서 왼쪽 갈빗대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탄생했는데 그 자태와 용모가 수려하였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 같음으로 月城 북쪽 냇가에서 목욕을 시키니 그 부리가 떨어졌으므로 그 내를 撥川이라 불렀다. 宮室을 남산 서쪽 기슭에 조영하고 二聖의 아이들을 받들었다. 사내아이는 卵生으로 알이 박(瓠)과 같았다. 鄕人들은 박을 朴이라 하는 까닭에 그 성을 朴이라 하였고, 여자아이는 그가 나온 우물 이름으로써 이름을 삼았다. 二聖이 십삼세에 이르자 五鳳元年 甲子에 사내아이는 왕이 되어 여자아이로 왕후를 삼고 국호를 徐羅伐로 하였다(《三國遺事》 권 1, 紀異 2, 新羅始祖 赫居世王).

여기서는 계룡이 나타나서 왼쪽 갈빗대에서 여자아이가 탄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술이 닭의 부리 모양이라 하여 닭과의 관련성이 강조되어 있다. 또한 그 부리를 월성 북천에서 제거하였으므로 내와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 궁실을 남산 서쪽 기슭에 조영하였는데 一然은 이를 昌林寺로 비정하고 있다. 二聖이 13세에 이르자 왕과 왕비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 나이는 바로 成

18) 張志勳, 〈農耕文化와 彌勒信仰〉(《三國時代 彌勒信仰 研究》, 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4), 114쪽.

19) 崔光植, 〈三國史記 所載 老嫗의 性格〉(《史叢》 25, 1981), 22쪽.

人이 될 수 있는 나이이다. 五鳳 갑자년(B.C. 57)에 왕위에 오르고 국호를 徐羅伐로 함으로써 국가가 건국되었다. 혁거세가 갑자년에 즉위하고 갑자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도 있다.<sup>20)</sup> 《삼국사기》시조 혁거세거서간조에는 혁거세가 前漢 孝宣帝 오봉 원년 갑자 4월 병진에 즉위하고 거서간이라 칭하고 이 때 나이를 13세라 하여 위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주석에는 정월 15일이라는 설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때는 정월 대보름이며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서 〈蔚珍 鳳坪 新羅碑〉<sup>21)</sup>에도 갑자년 정월 15일로 되어 있다. 정월 15일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혁거세의 신성성은 그의 죽음에서도 나타나 있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에 왕이 昇天하였다. 7일 후에 遺體가 땅에 떨어졌으며 왕후 또한 죽었다. 國人들이 합하여 장례를 치루고자 하였으나 큰 뱀이 따라와서 방해하여 五體를 각각 장례를 지내어 五陵으로 하고 巳陵이라 하였는데 曇嚴寺 북쪽의 능이 그것이다(《三國遺事》권 1, 紀異 2, 新羅始祖 赫居世王).

혁거세는 죽어 하늘로 다시 올라갔으며 7일 후에 유체가 땅에 떨어졌고 왕비도 죽었다. 그의 죽음 또한 보통사람과 다른 신이함을 보이고 있다. 큰 뱀이 합장하는 것을 방해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5체를 각각 장례를 지내어 오릉으로 하여 그 이름을 사릉이라 한데서도 뱀과의 관련이 나타나 있다. 이 오릉은 박혁거세·알영·南解王·儒理王·婆娑王의 능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시기의 고분인 조양동·다호리·양동유적은 원형 봉토분이 완전하지 않다.<sup>22)</sup> 지금과 같은 원형 봉토는 후대에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五廟制가 시행되면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씨 왕실에서 5묘제를 시행하면서 박씨들도 5묘를 만들었는데 무덤에 사당을 만들어 5릉을 5묘로 한 것이다.<sup>23)</sup> 이는 《삼국유사》味鄒王 竹葉軍條에서 미추왕릉을 大廟라 표현한 데서도 알 수 있다.

20) 末松保和, 〈新羅上古世系考〉(《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115쪽.

21) 韓國古代史研究會, 《韓國古代史研究》2-蔚珍鳳坪新羅碑 特輯號(知識産業社, 1989), 92쪽.

22) 崔鍾圭, 〈무덤에서 본 三韓社會의 構造 및 特性〉(《韓國古代史論叢》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1), 157~158쪽.

23) 崔光植, 앞의 글(1995), 75~76쪽.

시조 혁거세를 숭배하여 시조묘를 세워 4시로 제사를 지냈다.

제2대 남해왕 3년 봄에 비로소 시조 혁거세묘를 세워 4시로 제사를 지냈는데 친누이 阿老로서 제사를 주재하게 하였다(《三國史記》권 32, 志 1, 祭祀).

이 시조묘 제사는 소지왕대 신궁이 설치되기까지 신라의 국가제사로서 가장 중요한 제사였으며 임금의 즉위의례도 시조묘에서 거행하였다.<sup>24)</sup> 또한 신궁을 시조가 탄생한 곳인 나을에 세웠으며 신궁이 설치된 이후에도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신라의 멸망 때까지 끊이지 않았다.<sup>25)</sup> 시조묘의 제사를 친누이 아노가 맡았다는 데서 당시 여성 사제의 역할이 주목된다.<sup>26)</sup> 이 제사는 중국적 유교적 제사가 아닌 우리 고유의 제사이며 샤머니즘적 제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이 원화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신라는 불교의 수용단계에서부터 여승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신라의 종교상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석탈해 신화

신라 제5대 임금인 昔脫解는 제4대 임금인 儒理王을 이어 즉위하였다. 그는 昔氏의 시조로서 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신이함을 바탕으로 신화로 서 전하고 있다. 그의 신화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먼저 그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탈해는 본디 多婆那國 소생이다. 그 나라는 倭國 동북쪽 1천 리에 있다. 처음에 다파나 국왕이 女國의 왕녀를 들리어 처를 삼았는데 임신하여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다. 왕은 사람이 알을 낳은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버리려고 하였다. 그녀가 참을 수 없어 알을 비단으로 싸서 보물과 함께 함에 넣어 바다에 띄워 그 가는 바에 맡겼다(《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脫解尼師今).

24) 崔光植, 위의 글, 81쪽.

25) 崔光植, 〈新羅 神宮設置에 대한 新考察〉(《韓國史研究》 43, 1983), 69쪽.

26) 羅喜羅, 〈新羅初期 王의 性格과 祭祀〉(《韓國史論》 23, 서울대, 1990), 82쪽.



탈해는 다과나국 소생이라고 하였으나 다과나국의 위치는 왜국의 동북쪽 1천 리에 있다는 것밖에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임신하여 7년 만에 알을 낳았다는 사실로서 난생신화임을 알 수 있다. 보통사람은 임신하여 10개월이면 출산을 하며, 胎生인데 대하여 난생을 하였다는 것에서 박혁거세 신화와 같이 그의 신성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탈해를 바다에 띄어 보낸 것을 볼 때 그는 바다와 관련된 해양세력으로 볼 수 있다.<sup>27)</sup> 탈해를 북쪽에서 남하해 온 북방세력으로 보는 견해<sup>28)</sup>도 있으나 무리한 해석이라 하겠다. 탈해가 처음 이르는 곳이 金官國 해변이며 나중에 도착하는 곳이 辰韓의 阿珍浦口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金官國 해변에 이르니 金官人들이 괴이히 여겨 취하지 아니하다. 다시 진한 아진포구에 이르렀는데 이 때가 시조 혁거세 재위 39년이다. 이 때 해변의 노모가 끈으로 당겨 해안에 매고 함을 열어보니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 노모가 데려다 길렀는데 자라서 신장이 9척이나 되었고 풍채가 신이하고 빼어났으며 아는 바가 보통사람을 능가했다. 혹자가 이르기를 이 아이는 성씨를 모르므로 처음에 함이 왔을 때 까치 한 마리가 날아 울며 따라왔으므로 鵲자를 생략하여 昔을 氏로 삼고 또 넣어져 있던 함을 풀고 나왔으므로 그 이름을 脫解로 하자고 하였다(《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脫解尼師今).

탈해가 처음에 금관국에 도착하였을 때 금관국 사람들은 괴이하게 여겨서 이를 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삼국유사》 탈해왕조에는 수로왕이 臣民과 더불어 북을 치며 맞이하여 머무르게 하려고 하였으나 나는 듯이 달려 계림 동쪽 下西知村 아진포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駕洛國記》에는 탈해가 김수로왕과 둔갑술을 가지고 거루게 되자 도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기사는 가락국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고 《삼국사기》 탈해니사금조와 《삼국유사》 탈해왕조는 신라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므로 관점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하여튼 탈해는 금관국과는 인연이 닿지 않아 신라의 아진포구에 다다랐다. 해변의 노모가 함을 열어보니 알이 이미 사람으로 변해 사내아이가 되어 있었다. 이 노모는 《삼국유

27) 李炯佑, 《新羅 初期國家 成長史 研究》(建國大 博士學位論文, 1993), 160쪽.

28) 千寬宇, 〈三國志 韓傳의 再檢討〉(《震檀學報》 41, 1976), 25~26쪽.

사》탈해왕조에는 노구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당으로서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 알영을 데려다 기른 노구와 같은 존재로서 왕실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여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이다. 탈해의 신이함은 체구와 지식에서 보통사람을 능가하였다. 탈해의 등장을 알리는 메신저로서 까치의 존재를 유의해야 한다. 까치가 울며 날아왔으므로 노모는 탈해가 이른 것을 알았으며 끈을 당겨 잡아매고 함을 열어 사내아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발견된 고성 동외리 패총에서는 제1단 제4유구에서 큰새 2마리를 중심으로 모두 42마리의 새가 조각되어 있는 鳥紋靑銅器가 발견되었다.<sup>29)</sup> 이러한 까치의 존재는 혁거세의 등장을 알리는 말 우는 소리와 같은 효과라 하겠다. 신이한 이의 등장에는 그것을 알리는 동물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 공통점임을 알 수 있다. 김알지의 등장을 알리는 것은 닭이었다. 탈해는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여 노모를 봉양하였다.

탈해는 처음에는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여 노모를 봉양하였는데 게으른 표정이 일찍이 없었다. 노모가 이르기를 너는 비상한 사람으로 骨相이 뛰어나니 마땅히 학문을 좇아 공명을 세우라 말하였다. 이에 학문에 정진하고 겸하여 지리를 익혔다. 楊山 아래를 바라보니 瓠公宅이 吉地이므로 거짓 피를 내어 취하고 거기에 거하였다. 그 땅이 뒤에 月城이 되었다(《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脫解尼師今).

탈해의 신화는 혁거세 신화보다 매우 사실적이다.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고 학문과 지리를 익혀 자기의 노력을 통하여 실력을 과시하였다. 물론 탄생의 신이함과 골상이 비상한 점 등은 신화적 요소를 지니지만 그의 노력은 매우 인간적이다. 親母도 있고 養母가 있는 점도 인간적 묘사라고 하겠다. 또한 거짓 피를 내어 호공의 집을 취하는 대목은 매우 사실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말을 마치자 어린아이가 지팡이를 끌고 노비 둘을 데리고 토함산에 올라 돌무더기를 쌓고 7일간 머물렀다. 城中에 살 만한 곳을 바라보니 한 봉우리가 초승달 같은 형세로 오래 살 만한 곳이므로 내려와 찾아보니 호공택이었다. 이에

29) 국립진주박물관, 〈고성 동외리 패총 설명자료〉, 1995, 2쪽.

거짓 피를 내어 숫돌과 숫을 몰래 그 옆에 묻었다. 다음날 아침 문에 이르러 이르기를 이는 우리 할아버지대의 집이라 말하니 호공이 아니라 하므로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 관에 고하였다. 관에서 이르기를 어떤 근거로 이 집이 너희 것이라 하느냐고 물으니 어린아이가 이르기를 나는 본디 冶匠으로 잠시 가까운 마을에 나갔었는데 다른 사람이 취하여 살고 있으니 땅을 파서 조사해 보기를 청합니다 하여 그대로 하니 과연 숫돌과 숫이 나왔으므로 이에 그 집을 취하여 살게 되었다(《三國遺事》 권 1, 紀異 2, 第四脫解王).

《삼국사기》 탈해니사금조에는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고 학문과 지리를 익힌 다음 호공택을 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여기서는 아진포구에 도착하자마자 토함산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토함산은 탈해와 매우 관련이 깊은 곳으로 나중에 탈해는 토함산의 산신이 되어 東岳神으로서 국가제사의 中祀에 편제되었다. 石塚을 쌓고 7일간 머무른 것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기도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숫자 7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탈해의 어머니가 임신한 후 7년 만에 알을 낳았으며 석충에서는 7일간 머물렀다. 단군신화에서는 곰이 삼칠일 금기하여 사람이 되었다. 우리 민속에서는 아이를 낳고 삼칠일을 금기하고 있다. 하여튼 그의 눈에 들어 온 집은 양산 아래 나중에 월성이 된 호공의 집이었다. 탈해는 이미 풍수지리에 능숙한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이 신화에서 주목을 받은 부분은 그가 야장이라는 점과 숫돌과 숫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는 샤먼이 야장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야장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 바로 숫과 숫돌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가지고 탈해를 북방세력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피인 것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해왕 5년에 이르러 그 현명함을 듣고 그 딸로서 처를 삼게 하고 7년에 이르러 大輔로 등용하여 정사를 맡겼다. 유리왕이 죽으면서 이르기를 先王의 顧命에 내가 죽은 후 아들과 사위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현명한 자로서 왕위를 잇게 하라 하여 寡人이 먼저 왕위에 올랐으니 지금은 마땅히 왕위를 전하노라 하였다(《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脫解尼師今).

남해왕은 탈해를 사위로 삼고 대보로 등용하여 중책을 맡겼으며, 마침내는 유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탈해는 현명함으로써 왕의 사위

가 될 수 있었으며 중책을 맡게도 되었고 왕위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탈해의 신성성은 遙乃井의 고사에서도 볼 수 있다. 탈해가 죽은 후 疏川丘에 장례를 지냈는데 神이 뼈를 묻어라 명령하여 다시 장례를 지냈다.

建初 4년 己卯에 崩御하자 소천구 중에 장례를 지냈는데 神詔가 있기를 조심해서 내 뼈를 매장하라 하였다. 그 해골의 둘레가 3尺 2寸이며 身骨의 길이가 9척 7촌이고 이빨은 영겨 하나가 된 듯하고 골절은 모두 연결되어 소위 천하무적의 力士의 뼈였다. 이것을 뺏아서 궐내에 안치하니 또 신조로서 나의 뼈를 東岳에 安置하라 하므로 동악에 안치하였다(《三國遺事》 권 1, 紀異 2, 第四脫解王).

탈해의 뼈는 크고 신이하였으며 또한 신조로서 동악에 안치하였으므로 토함산인 동악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나타나 있다. 주석에는 ‘봉어진 후 27世 文武王代 調露 2년 庚辰 3월 15일 辛酉 밤에 太宗의 꿈에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는 탈해인데 토함산에 나의 塑像을 동악에 안치하라 하므로 왕이 그 말을 따랐으며 그리하여 지금까지 국가제사가 끊이지 않았으니, 곧 동악신이라’ 하였다. 통일전쟁을 전후하여 노구나 노모가 보이지 않고 노옹이나 노인으로 나타난다. 탈해는 토함산에 올라 양산을 바라보고 호공의 집을 취하였으며 요내정에서 白衣의 충성을 시험하였으며 문무왕대부터는 동악신으로서 국가제사의 대상이 되어 그 제사가 고려시대까지도 끊이지 않았다.

### 3) 김알지 신화

김씨의 시조 金闕知에 대한 신화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김알지의 신화도 신성성이 농후하다.

9년 봄 3월에 왕이 밤에 金城 서쪽 始林 나무 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호공을 보내어 보니 금색의 조그만 함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었다. 호공이 돌아와서 고하니 왕이 사람을 시켜 함을 취하여 열게 하였더니 조그만 사내아이가 그 중에 있었는데 모습이 매우 뛰어났다. 임금이 기뻐 좌우에 이르기를 이는 어찌 하늘이 나에게

자손을 내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이에 테려다 길렀는데 자라면서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다. 이름을 알지라 하고 금합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고 시림을 고쳐 계림으로 명하였는데 인하여 이로써 국호를 삼았다(《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脫解尼師今).

탈해왕 9년(65) 3월에 왕이 밤에 금성의 서쪽 시림 나무 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도 박혁거세 신화와 마찬가지로 신화의 현장은 숲이다. 또한 알지의 탄생을 알리는 데 닭의 우는 소리가 난 것은 혁거세의 탄생을 알린 말 우는 소리와 그 구조가 같다. 알지의 모습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호공인데 호공은 바로 석탈해에게 집을 빼앗기고 탈해왕 2년(58) 정월에는 대보에 오른 자이다. 금색의 조그만 함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고 한 것은 신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내려왔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함 안에 사내아이가 있었다는 것은 탈해가 난생이 아니라 태생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금으로 된 함은 매우 귀중하다는 점을 말하므로 금합 안에 있다는 것으로 귀하고 신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것은 난생신화보다 인간적이며 사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라 하였는데 알지는 곧 아기라는 뜻이다. 이것을 난생으로 생각하여 알로 파악한 것<sup>30)</sup>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시림은 계림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鳩林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sup>31)</sup>

《삼국유사》에는 보다 자세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永平 3년(60) 庚申 8월 4일 호공이 밤에 月城 西里를 지나다 시림 중에서 큰 광명을 보았다. 붉은 구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드리워졌고 구름 중에는 황금궤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빛이 궤에서 나왔으며, 또 흰 닭이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으므로 그 상황을 임금에게 아뢰었다. 왕이 그 숲에 행차하여 궤를 열어 보니 어린 사내아이가 누워 있다가 일어난 즉 혁거세의 故事와 같았으므로 그 말로 인하여 알지라 이름하였는데 알지는 鄉言에 어린아이를 칭하는 것이다. 안아서 싣고 대궐에 돌아오니 새와 짐승들이 서로 따르고 기뻐 날뛰고 깡충깡충 뛰었다. 왕은 길일을 택하여 태자에 책봉하였으나 뒤에 婆娑에게 양보하여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 금궤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다. 알지는 熱漢을 낳고, 열한은 阿都를 낳고, 아도는 首留를 낳고, 수류는 郁都를 낳

30) 三品彰英, 앞의 책, 530쪽.

31) 박은용, 〈시림 표기의 원어 측정〉(《한국전통문화연구》 창간호, 1985), 77쪽.

고, 육부는 俱道를 낳고, 구도는 未鄒를 낳고, 미추가 왕위에 오른 즉 신라 김씨는 알지로부터 비롯한 것이다(《三國遺事》권 1, 紀異 2, 金闕智 脫解王代)

《삼국유사》의 기록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다. 먼저 연대가 다른데 《삼국사기》에는 탈해왕 9년(65)으로 되어 있으며 《삼국유사》에는 탈해왕 4년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여기서는 왕이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호공이 월성 서리를 지나다 먼저 보고 왕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왕이 직접 행차하여 궐을 열고 사내아이를 얻어 대궐로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새와 짐승들이 기뻐 날뛰고 좋아하는 모습은 축제를 연상하게 한다. 여기서는 택일하여 태자로 책봉한 사실과 왕위를 파사에게 양보한 사실까지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의 世系를 서술하고 미추왕이 왕위에 오른 사실까지 기록함으로써 김씨가 왕위에 올랐다는 점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파사에게 왜 양보하였는지 하는 점과 미추왕 이전에 왜 왕이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러나 〈文武王陵碑〉를 비롯한 금석문 자료에는 김씨 왕실의 시조를 星漢이라 하여, 이를 알지로 보는 견해<sup>32)</sup>와 미추로 보는 견해<sup>33)</sup>가 있다. 위의 世系에서 역사적 인물은 구도로서 그는 8대 阿達羅尼師今에서부터 9대 伐休尼師今 때까지 활약한 인물이며, 미추왕 2년(263)에 葛文王으로 추봉되었다.<sup>34)</sup>

#### 4) 신라 신화의 특징

종래의 한국 고대의 건국신화와 시조신화에 대한 연구는 대개 천강신화와 난생신화의 이분법적 인식에서 진행되었다. 천강신화는 북방신화이며 난생신화는 남방신화라는 틀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신화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천강신화와 난생신화가 복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래는 여러 신화의 공통점만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

32) 今西龍, 《新羅史研究》(近澤書店, 1933), 492쪽.

33) 前間恭作, 〈新羅王の世次と其名につきて〉(《東洋學報》15-2, 1925), 56쪽.

34) 木下禮仁, 〈新羅始祖系譜の構成—金氏始祖を中心とし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2, 1966), 54쪽.

었기 때문에 각 신화가 갖는 역사적 성격이 부각되지 못하였다. 각 신화는 공통적인 요소도 있지만 다른 점들이 많으며 그것은 바로 그 신화가 갖는 독특한 성격과 역사적 과정의 단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신라의 건국신화와 시조신화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박혁거세의 신화는 천강신화와 난생신화가 결합되어 있으며 그 신이한 등장을 말이 알려 주고 있다. 또한 혁거세의 신이함은 알영의 신이한 탄생과 신성혼이 더욱 보강해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알영의 탄생은 용·우물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과의 관련을 의미하며, 결국 농경과 깊은 관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혁거세의 신성성은 그의 죽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죽어서 하늘로 승천했다가 다시 5체로 땅에 떨어져 오름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혁거세는 사후 다음 왕인 남해왕대에 시조묘로 설치되어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숭배되었다.

석탈해의 신화는 해양세력과 관련이 있으며 역시 난생신화이다. 혁거세 신화에는 알을 갈라 사내아이를 얻었는데 대하여 탈해 신화에서는 처음에 보냈을 때는 알이었는데 해변에서 阿珍義先이 발견했을 때는 사내아이가 되어 있었다. 탈해는 바다를 표류하면서 알에서 胎로 변화한 것이다. 그 바다는 바로 양수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탈해가 야장이라고 한 점을 들어 그를 북방세력으로 이해한 견해가 있으나 자신을 야장이라 한 것은 거짓 피를 낸 것이었을 뿐이며 탈해의 활동영역을 보면 동해안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사후에 토함산의 산신이 되어 동악신으로 숭배되어 中祀로서 국가제사가 고려시대까지도 이어졌다.

김알지 신화는 천강신화와 난생신화가 복합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김알지는 胎生이었다. 그가 금함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을 뿐 알에서 나왔다는 기록은 없다. 알지의 신화는 매우 인간적이며 사실적이다. 석탈해의 신화와 마찬가지로 호공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세력과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알지의 탄생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태어난 곳이 금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알지 신화에서 중요한 의미는 발달한 철기와 제련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북방세력의 진출과 관련이 있는 것

이다. 알지 신화의 사실성은 世系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신화로서는 후대적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혁거세 신화·석탈해 신화·김알지 신화는 각기 시대적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혁거세 신화는 농경생활, 석탈해 신화는 해양활동, 김알지 신화는 발달한 제철기술을 반영하고 있으며 각 신화는 시기적 발전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여러 계통의 신화가 나타난 것은 고구려나 백제에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신라의 특징이다. 이러한 여러 계통의 신화가 남아 있는 것은 신라문화의 복합성과 중층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라문화의 다양성과 융합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崔光植〉

## 2. 성립과 발전

신라의 모체는 진한 12국 중의 하나인 斯盧國이었다. 이 사로국의 성립은 바로 신라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로국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三國史記》의 초기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당시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료인 《삼국사기》의 편찬이 천여 년이나 뒤에 이루어졌던 까닭에, 그 연대나 사실성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면이 많고 그 기록 또한 매우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입장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신라의 성립과 발전과정에 대해서도 의견의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신라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 신라의 성립과정과 신라가 대내적인 결속력을 강화하여 인근의 소국들을 복속하고 영역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문제점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첫 왕인 赫居世는 기원전 57년에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의심하는 견해가 있었다. 고구려·백제에 비해 그 발전이 늦은 신라의 건국 연대가 가장 앞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신라 중심의 우월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혁거세가 즉위한 기원전 57년은 간지로 甲子年에 해당 되는데, 이는 특히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의 첫번째 갑자년에 해당하는 까닭에 이는 讖緯說의 甲子革命說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赫居世居西干 다음의 南解次雄이 즉위한 연대 또한 갑자년(A.D. 4)인 것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이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에는 사실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를 신라본기에 한정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라본기에는 脫解尼師今代에 신라가 소백산맥 이북지역에서 백제와 전투를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탈해는 57~80년 사이에 재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시기에 신라가 소백산맥 이북에서 백제와 교전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백제가 이미 이 지역을 석권하였으며 신라 또한 이 지역에까지 세력권을 확대한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3세기 전반의 한반도 상황을 전하는 중국의 《三國志》魏書 東夷傳에 의하면 당시 한반도의 중남부에는 辰王이 다스리는 目支國이 가장 큰 세력으로 馬韓의 50여 국을 통솔하고 있었고, 伯濟國은 마한 소국들 중의 하나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사로국 또한 弁辰 소국들 중의 하나로 기록되었을 뿐 다른 소국들에 비해 아무런 우위를 설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비교적 신라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했다고 생각되는 押督國(慶山)·伊西國(淸道) 등을 완전히 복속하지 못한 상태에서 百濟·樂浪·靺鞨·加耶 등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즉 압독국의 경우 《삼국사기》地理志에는 祗摩尼師今 때에 伐取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라본기에 의하면 婆娑尼師今 23년(102)에 항복하였다가 逸聖尼師今 13년(146)

에 모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서국은 《삼국유사》에 의하면 儒理尼師今 19년(A.D. 42)에 일단 항복하였으나 그 뒤 儒禮尼師今 14년(297)에 金城을 공격하여 크게 위협한 것을 보면 이들 소국에 대한 복속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탈해니사금대(57~79)의 백제와의 전투지역이 蛙山城(報恩)·狗壤城(沃川?, 槐山?)<sup>1)</sup>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伐休·奈解尼師今代를 거쳐 味鄒尼師今代(262~283)까지 계속되고 있다.<sup>2)</sup> 경주에서 비교적 가까운 이서국·압독국에 대한 지배조차 확실치 못한 상황에서 백제와의 전투를 위해 충청도지역까지 군대를 파견했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sup>3)</sup>

또 탈해의 즉위에 관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의 즉위 당시의 나이가 62세라고 하였는데, 같은 기사에서 그가 동해안의 阿珍浦에 도착한 것이 혁거세 재위 39년(B.C. 19)이라 하고 있다. 탈해가 즉위한 연도를 기준으로 그의 탄생년도를 찾아 보면 그가 즉위한 해가 서기 57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는 기원전 5년에 출생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그는 출생하기 14년 전에 이미 동해안에 도착한 것이 된다. 이는 단순한 기록상의 오기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나, 이 이외에도 초기의 기록을 그대로 믿을 경우 100년이 훨씬 넘는 수명을 가진 왕들이 다수 나타나게 되는 등의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sup>4)</sup> 또 초기에 보이는 靺鞨에 대한 기록은 말갈이란 종족 명칭이 6세기에 들어와서야 중국 문헌에 나타나고 그 거주지가 만주지역이므로 이를 기록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유리니사금 32년(A.D. 55)에 6部の 명칭을 고치고 李·鄭·孫·裴·薛·崔 등의姓을 하사하였다는 기록도 이 시기의 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다

1) 蛙山城을 충북 報恩으로 비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나, 狗壤城은 충북 沃川(李丙燾, 《譯註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12쪽), 또는 충북 槐山(千寬宇,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184쪽)으로 비정된다.

2) 백제와의 전투기록은 《三國史記》新羅本紀의 脫解尼師今 8년(64)·10년·14년·18년·19년, 婆娑尼師今 6년(85), 阿達羅尼師今 14년(167)·17년, 伐休尼師今 5년(188)·6년·7년, 奈解尼師今 4년(199)·19년·23년·27년·29년, 沾解尼師今 9년(255), 味鄒尼師今 5년(266)·11년·17년·22년조에 보인다. 미추니사금 22년(283) 이후에는 백제와의 전투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眞興王代(540~575)에 이르러 다시 나타난다.

3) 《三國遺事》王曆에는 “제16대 乞(訖)解尼師今…의 왕대에 백제병이 처음 來侵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기록이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여겨진다.

4) 姜鍾薰, 〈新羅 上古紀年の 再檢討〉(《韓國史論》 26, 서울대, 1991), 7~9쪽.

수의 견해이다.

과거 우리 역사를 이른바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일인 학자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기록을 근거로 《삼국사기》신라본기의 초기 기록 전부를 불신하는 태도를 취하였다.<sup>5)</sup> 초기의 일본 학자 중에는 신라 말기에 神德・景明・景哀의 세 왕이 박씨 성을 칭한 까닭에 박씨를 김씨 왕통 이전에 존재한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었으며, 여기에 다시 陰陽 三才사상에 입각하여 昔氏姓을 추가하여 3姓 세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sup>6)</sup> 그 뒤에도 이러한 이론은 더욱 발달하여 법흥왕 이전의 22명의 왕 이름이 알(卵)・날(生)・불(火)로 분류되는 점과 특히 내물마립간 이전의 16명의 왕 이름이 대부분 내물왕 이후의 6명의 왕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물마립간 이전의 신라본기의 기록을 허구로 보기도 하였다.<sup>7)</sup>

이러한 일본 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반박은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중요한 관점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 하나는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에 보이는 기록들은 紀年상의 문제점은 있으나 대체로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초기 기록을 대체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일본 학자들의 견해를 「불신론」 또는 「허구론」이라 한다면, 이에 반대하는 국내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수정론」과 「긍정론」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sup>8)</sup>

수정론에도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우선 《삼국사기》신라본기에 보이는 三姓世系를 계기적인 것이 아니라 병렬적인 것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 이는 신라본기 초기 기록의 기년상의 문제점을 일단 인정하고 이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료적 가치를 높이려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

5) 이 문제에 관한 일본학자들의 견해는 崔在錫, 《韓國古代社會史方法論》(一志社, 1987), 10~263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6) 前問恭作, 〈新羅王の世次と其名につきて〉(《東洋學報》15-2, 1925), 56~82쪽.  
池內宏, 〈新羅の骨品制と王統〉(《東洋學報》28-3, 1941; 《滿鮮史研究》上世篇 2, 吉川弘文館, 1960, 557~561쪽).

7) 末松保和, 〈新羅上古世系考〉(《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49~115쪽.

8)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一潮閣, 1982), 143~147쪽.

다. 수정론의 선구적인 견해에 따르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에 계승적으로 되어 있는 박·석·김 3성의 세계는 실제로는 병렬적인 것으로, 부족연맹 시기에 실제 연맹장에 오르지 못한 자기 부족의 부족장들을 후대에 이들도 尼師今이었던 것처럼 인식하여 이사금의 대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훗날 史書의 편찬과정에서 奈勿 이후에도 그대로 계속된 金氏世系와 내물 직전까지 이사금들을 배출한 昔氏世系는 기년상의 위치를 비교적 원형 그대로 두고, 석씨·김씨와 병렬적인 朴氏世系를 그 이전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전반적인 기년의 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3성 세계를 병렬적인 것으로 고치고, 실제 이사금이 아니었던 인물들을 세계에서 제외한다면 사실과 가까운 紀年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결과 祗摩·逸聖·阿達羅·助賁·沾解·基臨尼師今 등을 제외하고, 언어학적인 해석을 통해 박씨 세계 속에 끼어 있는 탈해를 기록상 그의 손자로 되어 있는 벌휴와 동일인물이라고 보아 세계에서 제외시켰다.<sup>9)</sup>

또 최근에는 3성 세계 자체는 인정하고 왕들의 재위 연수만을 수정할 것을 주장한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백제와의 교전 기사가 탈해왕대부터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 기년의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기존 연구에서 탈해를 3세기 전반에 위치시킨 문제점을 지적하고, 3성 족단의 계보를 출생시기를 중심으로 역추적하여 탈해를 약 250년대로, 파사니사금은 260~270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sup>10)</sup>

이에 반해 「궁정론」의 입장에 서는 학자들은 신라 왕통에 있어 박·석·김 3성 교립은 사실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밖의 일반적인 기사도 대체로

9) 金哲堧, 〈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歷史學報》17·18, 1962), 151~192쪽.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진 학자로는 金光洙가 있다. 그는 朴·昔·金 3성의 계기적 계승을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朴氏世系 가운데 있는 脫解와 昔氏世系 속에 끼어 있는 味鄒의 경우에는 世系상의 위치를 의심하였다. 그래서 탈해와 伐休를 세계에서 제외시키고, 미추의 위치를 奈勿 직전으로 끌어내림으로써 기년의 인하를 추구하였다. 또 奈解尼師今 초반의 12년과 미추니사금 초반의 10년, 訖解尼師今 후반의 36년을 제외시켜 전체적으로 70여 년의 기년을 인하시키고자 하였다(金光洙, 〈新羅 上古世系의 再構成 試圖〉, 《東洋學》3, 檀國大, 1973, 363~391쪽).

10) 姜鍾薰, 앞의 글, 1~58쪽.

파사니사금(A.D. 80~113) 이후는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는 해방 이후의 고고학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sup>11)</sup> 긍정론의 대표적인 견해에 따르면 초기에는 朴氏系와 金氏系의 두 부족 집단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박씨계의 세습적인 首長權이 성립·발전하였는데, 이것이 일종의 冶匠의 성격을 갖고 있는 탈해니사금(A.D. 57~80)에 의해 한때 단절되었다고 한다.

탈해는 冶鐵의 능력을 가진 자였으나 족적인 기반이 약하여 그 일대로 끝났으며, 뒤에 탈해의 후손을 자처하는 석씨계의 별휴니사금(184~196)이 박씨계를 대신하여 등장하였으나 이는 탈해의 후예가 아니라 실은 마한·백제세력에 밀려 한강 유역에서 忠州→報恩→小白山脈을 거쳐 마침내 경주에까지 이동해 온 이른바 진한세력으로 본다. 그리고 이 석씨계는 사로국의 지배권을 확보한 뒤 왕성한 정복력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3세기 중엽에는 사로국이 진한의 전지역을 통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탈해대에 보이는 신라와 백제 사이의 전투기록 또한 남하하는 진한세력과 백제세력 사이의 분쟁이 나중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2)</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모든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들이 어느 정도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특히 기년상의 문제에는 아직도 상당히 커다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세론적으로는 수정론의 입장이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에 대해 대체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서술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절충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11) 金元龍, 〈三國時代의 開始에 關한 一考察〉(《東亞文化》 7, 1967), 1~33쪽.

12)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 上(《韓國學報》 2, 1976), 18~46쪽. 이 이외에도 긍정론의 입장에 서는 학자로 李鍾旭이 있다. 그는 儒理王代 이후의 기록은 그 기년을 인정할 수 있고, 赫居世와 南解代의 기록들도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신라 국가 형성기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하였다(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1982), 4~9쪽.

## 2) 성립

## (1) 사로 6촌의 위치와 성격

신라의 모체인 사로국은 사로 6촌이라 불리는 여섯 개의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사로 6촌의 연맹에 의해 사로국이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사로지역에 關川 陽山村·突山 高墟村·嘴山 珍支村·茂山 大樹村·金山 加利村·明活山 高耶村의 여섯 촌이 있었고, 이들 6촌에는 각각 촌장이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6촌의 명칭 등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三國遺事》에 보이는 斯盧 6村

村名	村長	始祖 誕生地	改定名 (儒禮王 9년)	更定名 (高麗太祖)	位置	姓氏	俗說
關川陽山村	竭平	瓢嵒峯	及梁部(梁部)	中興部	中央	李	母
突山高墟村	蘇伐都利	兄山	沙梁部	南山部	南村	鄭(崔)	父
茂山大樹村	俱禮馬	伊山	漸(牟)梁部	長福部	西村	孫	
嘴山珍支村	智伯虎	花山	本彼部	通仙部	東南村	崔(鄭)	
金山加利村	祗沱	明活山	漢(韓)岐部	加德部	東村	裴	女
明活山高耶村	虎珍	金剛山	習比部	監川部	東北村	薛	子

사로 6촌의 위치에 관하여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경상도 일원으로 보는 견해이고,<sup>13)</sup> 둘째는 경주분지 및 월성군 일대로 보는 견해이

13) 斯盧 6村의 위치를 경상도 일원에 비정하는 견해는 처음 金哲堦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그는 關川 陽山村을 慶州에, 金山 加利村을 金泉과 星州 부근에, 茂山 大樹村을 淸風과 醴泉에, 突山 高墟村을 靑山과 尙州에, 明活山 高耶村을 경주와 永川에 비정하고 嘴山 珍支村은 불명이라 하였다(金哲堦, 〈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上, 《歷史學報》1, 1952, 29쪽). 그 후 千寬宇는 이 견해를 발전시켜 茂山을 淸風이 아닌 義城으로, 明活山을 慶山 방면으로 수정하였으며, 嘴山 珍支村은 寧海의 丑山과 蔚珍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하였다(千寬宇, 앞의 글, 18~46쪽).

며,<sup>14)</sup> 셋째는 그 범위를 경주분지 안에서 찾는 것이다<sup>15)</sup>. 그런데 《삼국지》에서 동이전에 의하면 사로국은 진한의 12개의 소국 중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진한의 영역이 경상도의 낙동강 동쪽 일대이므로 사로국을 구성하는 6촌을 경상도 일대에 비정한 견해는 아무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시의 소국들은 몇 개의 읍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인접하여 하나의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대구의 경우 新川 유역의 범람원을 무대로 몇 개의 취락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대구지역의 초기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는데,<sup>16)</sup> 사로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로 6촌은 경주분지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들 6촌인과 6촌의 지배세력인 6村長의 출자에 대하여 《三國志》辰韓條에는 秦의 亡人이라 하였고, 《삼국사기》에는 고조선의 遺民이라고 하였으며, 《삼국유사》에는 진한 출신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건국 주체세력인 3성 집단이 모두 북쪽으로부터 남하한 이주민 세력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이보다 앞서 조선의 유민들이 이곳에 와서 산골짜기에 흩어져 여섯 촌락을 이루었다’는 기록은 단순히 보아 넘길 수 없다. 이는 아마도 고조선 멸망 이후 유이민들의 한반도 남부로의 유입을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삼국유사》에서는 ‘진한의 땅에 옛부터 6촌이 있었다’고 하여 이들이 원래 진한지역 출신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으나, 6촌의 시조들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天降族 설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또한 사로 6촌의 지배세력들이 북방으로부터의 유이민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사로국의 모체인 사로 6촌은 북방으로부터의 유이민 세력이 주축

14) 李鍾旭, 앞의 책, 22~25쪽 및 李炯佑, 《新羅 初期國家 成長史 研究》(建國大 博士學位論文, 1993), 11~25쪽.

15) 李丙燾, 〈新羅의 起源問題〉(《震檀學報》 8, 1937;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596~604쪽).

李鍾恒, 〈新羅六部考〉(《國民大論文集》 1, 1969), 1~51쪽.

金元龍, 〈斯盧六村과 慶州古墳〉(《歷史學報》 70, 1976), 1~14쪽.

崔在錫, 〈新羅의 六村·六部〉(《東洋學》 16, 檀國大, 1986), 205~226쪽.

16) 尹容鎮, 〈大邱의 初期國家 形成過程〉(《東洋文化研究》 1, 慶北大, 1974; 歷史學會 編, 《韓國史論文選集 古代篇》, 一潮閣, 1976, 231~243쪽).

이 되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최근의 고고학 계통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본다면 경주분지에 정치적 지배계층의 묘제로 등장한 최초의 것은 지석묘라고 생각된다. 청동기시대의 묘제를 대표하는 지석묘는 기원전 7~2세기경에 축조된 것으로 생각되며,<sup>17)</sup>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경주분지도 예외는 아니다.<sup>18)</sup> 지석묘 다음으로 경주에 등장한 묘제는 土壙墓인데, 시기의 선후에 따라 土壙木棺墓와 土壙木槨墓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토광묘 다음으로는 積石木槨墳이 나타난다. 이 묘제들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새로운 지배계층의 등장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들 6촌이 진한지역의 원주민과 북방으로부터의 유이민의 결합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그 연대는 아무래도 철기문화의 도입 이후가 될 것이며, 그들의 묘제는 청동기시대의 전통적인 묘제인 지석묘와는 다른 묘제가 등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주 九政里나 入室里 등의 세형동검을 동반하는 초기 철기의 유적은 이러한 상황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경주지역의 토광묘의 기원이나 편년에 대해 합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이들이 한반도 서북부지역의 나무곽 무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옳다면,<sup>19)</sup> 이들은 이 지역에 새로운 유이민의 도래와 이에 따른 새로운 정치질서의 성립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sup>20)</sup> 즉

17) 金載元·尹武炳, 《韓國支石墓研究》(國立博物館, 1967), 18~19쪽.

18) 경주분지에 분포하는 지석묘에 대한 정확한 보고는 없으나, 대략 경주군과 월성군 일대에 30여 개 정도의 支石墓群이 존재한다고 하며, 토함산 이동의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월성군 내에만도 100여 기의 지석묘가 존재한다고 한다(李鍾旭, 앞의 책, 31~32쪽 및 李炯佑, 앞의 책, 14~16쪽).

19) 崔秉鉉, 《新羅古墳研究》(一志社, 1992), 82~90쪽.

20)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견해는 일치하고 있지 않다. 토광목곽묘의 주인공을 6촌의 지도자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金元龍, 〈고분문화〉, 《慶州》, 열화당, 1984, 258쪽), 토광목관묘를 대개 기원전 2세기 말~1세기 초에 경주에 도달한 선발 유이민 세력 즉 박씨계의 묘제로 보고 토광목곽묘는 서기 2세기 후반에 남하한 후발 유이민 세력의 것으로 석씨계의 지배세력의 묘제였다는 견해도 있다(崔秉鉉, 위의 책, 80~109쪽).



고조선의 멸망과 이로 인한 북방의 정치적 변동에 따른 유이민의 波動은 남부지역에서의 소국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 진한인들이 낙랑지역의 주민들을 阿殘이라 부른 것을 당시의 중국인들이 「阿」를 「我」로 보아 ‘뒤에 남은 우리 족속’이란 뜻으로 풀이한 것이나, 辰韓을 혹은 秦漢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秦의 役을 피해 韓으로 간 종족’이라는 식의 중국인의 설명<sup>21)</sup>은 고조선 멸망 이후 연속적인 남쪽으로의 유이민의 파동이 있었음을 인식한 바탕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이들 사로 6촌의 촌장들은 각기 독자적인 정치조직과 통치영역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들이 비록 하나의 연맹체를 형성하고는 있었겠지만, 그 유대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느슨한 연맹체제를 형성하여 공동의 관심사가 있을 때 6촌의 지도자들이 모여 협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아직 어느 한 촌락의 장이 다른 촌장들을 압도할 만큼 성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 (2) 사로국의 형성

6촌이 연맹체를 형성하여 사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 박혁거세로 대표되는 박씨족의 등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생각된다. 박씨족 이외에도 신라의 왕족에는 김씨족과 석씨족이 있는데, 이들 三姓 집단의 모두 또는 그 일부가 이주민 세력이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 3성 집단과 6촌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먼저 토착족으로서 김씨족이 먼저 경주에 先住하였고 그보다 뒤에 박씨족이 이동해 와서 二部體制를 형성하고 후에 사로국으로 발전하였으며, 탈해를 시조로 하는 석씨족은 경주의 동해변에서 온 이주민이라고 본 견해가 있다.<sup>22)</sup> 또 이와 비슷하게 경주 最古의 선주민은 김씨족으로, 뒤에 박씨족이 도래하여 세습왕권을 잡아 김씨를 왕비족으로 하였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나, 탈해는 북방의 흉노계의 인물로 후대의 석씨족과는 별개이며, 벌휴왕 이하의 석씨족은 반도 중부의 舊辰國에서 2세기 말경에 이르러 경주에 도래

21)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22) 金哲堧, 앞의 글(1952), 44~46쪽.

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23)</sup> 이들 연구에서는 3성 집단을 구체적으로 6촌이나 6부와 연결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sup>24)</sup>

그러나 이와는 달리 3성세력을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시기와 위치를 달리 하면서 각자의 소국을 세운 주체세력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이들이 소국을 세운 곳은, 석씨족은 감포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일대이며, 박씨족은 상주를 중심으로 하여 沙伐國을 세웠고, 김씨세력은 경주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鷄林國을 세웠으며, 6촌은 기본적으로 경주지역에 있었던 6개의 읍락이었으나 사벌국세력인 박씨세력이 경주로 이주하게 되면서 혁거세의 건국설화와 연결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25)</sup>

신라의 건국설화를 보면 혁거세를 대표로 하는 박씨족은 최초로 경주지역에 등장한 사로국의 지배세력이며, 북쪽으로부터 남하한 유이민 세력임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박씨족이 사로 6촌의 어느 한 촌락과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6촌세력과의 타협 속에 지배자로 등장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김씨족은 흔히 이들보다 선주한 유이민 집단으로 생각하지만, 이들과 6촌세력과의 관계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성립된 사로국의 최초의 長인 혁거세의 칭호는 「居西干」이었다. 거서간의 구체적인 어원은 분명치 않으나 사로 6촌의 촌장들에 의해 추대된 부족장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혁거세를 이어 사로국의 장이 된 南解를 「次次雄」으로 불렀는데, 차차웅은 慈充이라고도 하며 이에 대해 金大問은 “方言으로 巫를 일컫는다. 무당이 귀신을 섬겨 제사를 주관하므로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마침내 尊長者를 칭하여 자충이라고 하였다”고 설명하였다.<sup>26)</sup> 그러나 《삼국유사》에서는 “남해거서간은 또

23) 千寬宇, 앞의 글, 18~46쪽.

24) 李丙燾는 及梁部(關川 陽山村)를 朴氏, 沙梁部(突山 高墟村)를 金氏, 本彼部(嘴山 珍支村)를 昔氏와 연관지었으며(李丙燾, 앞의 책, 1976, 605~607쪽), 金哲堧은 금량부가 김씨와 박씨의 2부체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석씨족은 漢岐部(金山加利村)와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金哲堧, 앞의 글, 29쪽). 千寬宇는 금량부를 김씨, 사랑부를 박씨로 보고 本彼部는 박씨 아니면 김씨나 혹은 별개의 씨족이고, 나머지 3부는 김씨에 예속된 것으로 보았다(千寬宇, 앞의 글, 22쪽).

25) 盧重國, 〈鷄林國考〉(《歷史教育論集》 13·14, 1989), 169~203쪽.

26) 《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남해자차웅 원년.

한 차차웅이라고도 한다”<sup>27)</sup>고 거서간과 차차웅을 혼용하고 있음으로 보아, 거서간과 차차웅은 그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마 당시의 사로국의 장은 어느 정도 제사장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것이니, 이는 神政政治(Theocracy)의인 성격을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sup>28)</sup>

혁거세와 남해가 사로국의 지배자로 활약하고 있을 무렵 탈해로 대표되는 씨족계의 세력도 경주지역에 출현하였다. 《삼국사기》신라본기에 전하는 그의 설화에 의하면 그는 원래 倭國의 동북 1천 리 되는 곳에 있었던 다파나국 출생으로 금관국을 거쳐 경주의 동쪽 해안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瓠公의 집을 빼앗아 살다가 남해의 사위가 되어 大輔란 벼슬에 임명되었다고 한다.<sup>29)</sup>

《삼국유사》에는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탈해집단은 먼저 금관국으로 들어갔으나 거기에서 용납되지 못하므로 사로로 옮겼으며, 이들은 철기를 제련하는 冶鐵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sup>30)</sup> 아마 이들은 먼저 이 지역에 도착한 박씨족에 비해 보다 발달한 철기제작 기술을 소유하고 이주한 집단이라고 생각되는데, 박씨족과의 제휴 속에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설화에서 탈해를 해양세력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탈해의 성격이 冶匠적인 것이고 또 《삼국사기》의 탈해왕대에 처음 騎馬전투가 보이는 까닭에<sup>31)</sup> 이들은 북아시아의 기마민족의 계통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이들의 이주 경로가 한반도의 내륙지방을 관통한 것이 아

27) 《三國遺事》 권 1, 紀異 2, 第二南解王.

28) 尼師今時代의 이사금들 중에서도 巫的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가 있으니, 탈해가 물을 떠오다 먼저 마신 白衣를 呪術로 혼냈다고 한 것이나(《三國遺事》 권 1, 紀異 2, 第四脫解王), 伐休가 점을 잘 쳐서 그 해의 豊凶과 사람의 邪正을 미리 알았다는 것(《三國史記》 권 2, 新羅本紀 2, 拔休 이사금 즉위년) 등이 그 예이다.

29) 《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탈해 이사금 즉위년.

30) 《三國遺事》 권 1, 紀異 2, 第四脫解王.

31) 《삼국사기》 권 1, 新羅本紀 1, 탈해 이사금 8년 8월. 또 탈해 이사금대의 변방의 장수인 居道는 군사를 모아 말을 타고 노는 ‘馬叔’이란 행사를 통해 居柒山國과 于尸山國의 두 나라를 정벌했다고 하는데(《三國史記》 권 44, 列傳 4, 居道), 여기서 마숙이란 주로 騎馬 기술을 겨루는 놀이라 생각된다. 이로 보아 서도 당시에 이미 기마전투가 보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 바다로 남해안을 거쳐 경주의 동쪽 해안으로 상륙한 까닭에 이러한 설화가 생겨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탈해가 재위기간 중에 토함산에 순행했다는 것이나,<sup>32)</sup> 탈해가 죽은 뒤에 그의 뼈로 塑像을 만들어 토함산에 안치하고 東岳(吐含山)신으로 모셨다는 기록 등<sup>33)</sup>은 모두 그의 이동 경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탈해로 대표되는 석씨족은 혁거세의 박씨족에 비해 한층 발달된 철기문화와 기마전투의 기술을 갖고 있었다. 탈해왕대에는 인근지역과의 전투기록이 빈번하게 보이고,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의 두 나라를 정복했을 뿐 아니라 백제와의 교섭·전투 기사도 보이는데, 이 기록들은 그 연대에 관하여는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쨌든 탈해니사금대에 신라는 소국의 단계를 벗어나 인근 지역에 대한 정복에 나서기 시작하는 등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탈해니사금은 남해의 사위로 그 아들인 유리와 왕위를 다룰 때 유리가 이(齒)가 많아 먼저 왕위에 올랐다는 설화<sup>34)</sup> 연맹체의 부족장들이 모여 부족의 장을 선출하던 전통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경우 반드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연맹장으로 선임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등한 후보자들 사이에서 연맹장을 선출할 때 年長者를 우선하였다고 보아진다. 이는 氏族社會 이래로 血緣關係에서 우위를 점하고 연령에 따른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지도자로 선정하던 長老政治(Gerontocracy)의 성격이 남아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사금시대의 왕위는 가장 유력한 부족의 출신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선임되었을 것이지만, 박·석·김 3성의 交立이나 벌휴니사금이나 나해니사금이 국인에 의해 共立되었다고 전해지는 것들은 이러한 선출과정이 지속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초기의 사로국에서는 몇몇 유력한 부족의 우월성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아울러 각 연맹체가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32) 《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탈해니사금 3년 3월.

33) 《三國遺事》 권 1, 紀異 2, 第四脫解王.

34) 《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유리니사금 즉위년.

## 3) 발 전

## (1) 내부체제의 정비

《三國志》魏書 東夷傳에 보이는 三韓의 小國들은 기본적으로 邑落으로 구성되었으며 읍락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읍락이 國邑이었다. 읍락과 국읍의 관계는 소국의 발전정도에 따라 달랐겠지만 초기에는 국읍의 정치적 실권은 미약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斯盧國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사로국의 성장은 안으로 사로국 내부의 읍락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렇게 모아진 힘으로 인근의 소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켜 이들을 차례로 복속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로국을 구성하는 읍락들 즉 후대의 6부가 된 집단들은 상당히 독자성이 강한 집단이었고 그 전통은 상당히 늦게까지 계속된다고 보이지만, 삼한 지역에서는 대개 2세기 말경부터 국읍을 중심으로 읍락사회가 통합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므로<sup>35)</sup> 이 지역에서 가장 발전이 빨랐다고 생각되는 사로국에서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국읍을 중심으로 하는 읍락사회의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다음의 기록들을 통해 읍락사회의 통합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 A-① 脫解로서 大輔란 벼슬을 삼아 軍國政事を 맡기었다(《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남해차차웅 7년).
- ② 倭人이 兵船 백여 척을 보내어 해변의 民戶를 노략질하므로 六部の 精兵을 발하여 막게 하였다(《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남해차차웅 11년).
- ③ 6부의 이름을 고치고 이어 姓을 하사하니 楊山部를 梁部라 하고 그 姓을 李라 하고...(《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유리 이사금 9년)
- ④ 박씨의 貴戚으로 국내의 州郡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니 號를 州主·郡主라 하였다(《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탈해 이사금 11년).
- ⑤ 使者 10명을 分遣하여 州·郡主로 公事に 게을리하여 田野를 많이 거칠게 한 자를 廉察하여 貶黜케 하였다(《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파사 이사금 11년).

35)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一潮閣, 1984), 132~164쪽.

- ⑥ 波珍滄 仇道와 一吉滄 仇須分을 拜하여 左右軍主를 삼아 召文國을 치니 軍主의 名은 이에서 시작된 것이다(《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벌휴니사금 2년).

위의 기록들은 《삼국사기》의 벌휴니사금대(184~195)까지의 기록들인데, 이를 통해 당시 사로국이 대내적으로 결속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대략 살펴볼 수 있다. 먼저 A-①의 대보는 그 임무가 군국정사를 맡았다는 것으로 보아 사로 6부의 연합군대를 지휘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보라는 직명은 탈해니사금대에는 伊伐滄으로 바뀐다고 보이지만<sup>36)</sup> 연합군의 통수권이 왕 자신이 아닌 관료에게 위임된다는 사실은 사로국에 있어서 연맹장인 왕의 지위가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겠다. 대보 임명 기사 4년 뒤의 기록인 A-②에서 6부의 정병을 동원하였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보의 임무가 연합군의 통수에 있는 것임을 반증하는 동시에 당시 사로국의 발전 단계가 다른 소국에 비해 앞서 있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즉 당시의 사로국은 이미 연맹장인 사로국의 왕이 연합군의 지휘자를 자신의 아래에 두고 6부의 군대를 동원해서 대외전투에 나설 정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A-③의 6부 改名 및 賜姓의 기록은 그 사실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기록이기는 하지만 유리니사금대에는 6부의 전신인 6촌사회를 어떠한 형태로든 재편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탈해니사금대(A.D. 57~79)와 파사니사금대(A.D. 80~111)에 州主와 郡主를 임명했다거나 이들을 감찰하였다는 A-④·⑤의 기록은 비록 주주·군주 등의 이름이 당시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경주를 중심으로 한 6부의 지역과 일부 북숙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통치질서를 마련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37)</sup> 그리고 A-⑥의 처음 軍主를 두었다

36) 《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탈해니사금 11년조에 順貞을 伊伐滄으로 삼아 政事를 맡겼다고 하였는데, 大輔라는 직명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보의 직제는 이 때에 폐지되고 이별찬이 그 임무를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37) 《三國史記》 권 48, 列傳 8, 勿稽子에 “물계자는 奈解尼師今 때의 사람이다. 이 때에 八浦上國이 함께 阿羅國을 칠 것을 모의하니 아라국의 사신이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 이사금이 王孫 奈音으로 하여금 近郡 및 6부의 군사를 거느리

는 기록도 智證王代(500~513)의 기록과 중복되는 까닭에 그 사실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나,<sup>38)</sup> 여기의 군주는 좌우군주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지증왕대의 군주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 좌우군주는 慈悲麻立干 16년(473)에 “正月에 阿滄 伐智와 級滄 德智로 左右將軍을 삼았다”는 좌우장군과 그 성격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때에 마련된 군사제도의 골격이 자비마립간대(458~478)까지 지속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록의 좌우군주는 남해차차웅대의 대보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중앙의 六部兵을 지휘하는 책임자의 명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sup>39)</sup> 이 때에 두 명의 군주를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군대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장군을 복수로 임명함으로써 병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상호견제케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召文國을 정벌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제 사로국은 적극적으로 인근의 소국을 점령하기 위해 군대조직을 재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추측이 옳은 것이라면 대개 2세기 말경에 이르러 사로국은 국읍 중심의 내부단결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정벌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2) 진한 소국의 복속

그러면 사로국이 인근의 소국들을 복속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소국의 복속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 가서 구원케 하여 드디어 八國 군사를 격파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동원된 군대가 ‘근군 및 6부의 군사’라고 한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나해니사금대(196~229)에 동원된 군대는 단지 6부에서 동원한 6部兵뿐만이 아니라 인근 郡의 사람들도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당시에 사로국은 인근의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여 군사를 동원할 정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8)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지증마립간 6년조에 “2월에 왕이 친히 국내 州郡縣의 제도를 정하고 悉直州를 두어 異斯夫로 軍主를 삼으니, 군주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39) 6部兵에 관한 기록은 위의 A-② 이외에도 《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나해니사금 14년(209)조에도 보이는데, 이로 보아 2~3세기까지의 신라의 군대는 6부의 군대를 연합한 것이 주축임을 알 수 있다.

- B-① 居道는 脫解尼師今 때에 벼슬하여 干이 되었다. 그 때 于尸山國・居柒山國이 이웃 지경에 介在하여 자못 나라의 근심이 되었는데…이에 병마를 출동하여 쳐들어가 두 나라를 멸하였다(《三國史記》권 44, 列傳 4, 居道).
- ② 군대를 일으켜 音汁伐國을 치니 그 임금의 무리와 더불어 스스로 항복하였고, 悉直・押督의 두 나라 왕도 와서 항복하였다(《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파사니사금 23년).
- ③ 군사를 보내어 比只國・多伐國・草八國을 쳐서 아울렀다(《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파사니사금 29년).
- ④ 波珍湊 仇道와 一吉湊 仇須兮를 拜하여 左右軍主를 삼아 召文國을 치니 軍主의 名은 이에서 시작된 것이다(《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벌휴니사금 2년).
- ⑤ 伊湊 于老로 大將軍을 삼아 甘文國을 쳐 깨뜨리어 그 땅을 郡으로 삼았다(《三國史記》권 2, 新羅本紀 2, 조분니사금 2년).
- ⑥ 骨伐國王 阿音夫가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므로 邸宅과 田莊을 주어 安居케 하고 그 땅을 郡으로 삼았다(《三國史記》권 2, 新羅本紀 2, 조분니사금 7년).
- ⑦ 尙州는 沾解王 때에 沙伐國을 취하여 州를 삼은 것이다(《三國史記》권 34, 地理志 1, 상주).

먼저 B-①의 기록은 탈해니사금대(57~79)에 거도가 馬叔이라는 희락을 통해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을 점령하였다는 것인데, 이보다 몇 세기 뒤인 지증왕대(500~513)에 異斯夫가 加耶를 공격할 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야를 멸망시켰다는 기록이 있을 뿐 아니라, 우시산국을 蔚山, 거칠산국을 東萊 근처로 비정하였을 때 탈해니사금대의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sup>40)</sup> 또 두 나라를 병합한 중요한 사실이 거도열전에만 보이고 신라본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이 일이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말해 주는 증거로 생각된다. B-②의 기록도 다분히 설화적인 요소가 짙은 것으로 파사니사금대의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悉直國의 위치가 현재의 三陟 부근이고 음즙벌국을 安康 부근으로 비정할 경우 이 두 나라의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어 양국 사이에 영토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며, 首露王

40) 李丙燾, 앞의 책(1976), 645쪽.

千寬宇, 앞의 책, 291~292쪽.



이 이 분쟁에 관여한다는 것도 사실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인 견해였다.<sup>41)</sup> 그러나 실직국의 위치는 현재의 삼척 부근이 아니라 경주나興海 부근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으며,<sup>42)</sup> 《삼국사기》 지리지에도 음즙벌국과 실직국의 복속이 파사니사금대의 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sup>43)</sup> 신라본기에도 파사니사금대에 실직이 叛했다는 기록과 압독에 行幸했다는 기록이 있음으로 보아<sup>44)</sup>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다.<sup>45)</sup>

이상의 추측과 같이 파사니사금 23년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면 그 이후의 소국 병합의 기록도 모두 사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B-③의 비지국·다벌국·초팔국의 정벌 기사는 사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up>46)</sup> 다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sup>47)</sup> 비지국을 昌寧, 다벌국을 大邱, 초팔국을 陝川郡 草溪面에 비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사로국은 永川의 골벌국이나 義城의 소문국 등을 복속하기에 앞서 이보다 멀리 있는 대구·합천 등지를 점령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사로국의 영토확장이 반드시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차례로 복속시켜 나간 것은 아니고 또 복속이 곧 영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B-④·⑤의 소문국과 감문국의 복속은 모두 군대를 동원한 본격적인 정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문국은 현재의 義城 부근으로, 감문국은 金泉市

41) 千寬宇, 위의 책, 292쪽.

42) 崔炳云은 悉直谷國을 月城郡 川北面 北部로 비정하고 있으며(崔炳云, 〈西紀 2 世紀頃 新羅의 領域擴大〉, 《全北史學》 6, 1982, 17~49쪽), 李丙燾(李丙燾, 앞의 책, 1976, 17쪽)와 方龍安(方龍安, 〈悉直國에 대한 考察〉, 《江原史學》 3, 1987, 51~66쪽)은 安康 부근으로 보고 있는데, 안강읍과 천북면은 경계를 접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 부근을 실직곡국의 故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43) 《三國史記》 권 34, 地理志 1, 義昌郡 및 권 35, 地理志 2, 三陟郡.

44) 《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파사니사금 25년·27년.

45) 다만 首露王이 이 분쟁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은 후대의 粉飾이라 생각된다.

46) 李丙燾, 앞의 책(1976), 17쪽.

千寬宇, 앞의 책, 292~295쪽.

李鍾旭, 앞의 책, 83~90쪽.

47) 李丙燾는 比只國을 昌寧, 多伐國을 大邱, 草八國을 陝川郡 草溪面에 비정하고 있으나, 千寬宇는 이들을 각각 安康邑과 迎日郡의 義昌邑·杞溪面에 비정하고 있어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주 46) 참조).

開寧面 일대로 비정된다.<sup>48)</sup> 즉 2세기 말인 벌휴니사금 2년(185)에 의성지방에 진출한 신라는 3세기 초인 조분니사금 2년(231)에는 金泉 부근까지 진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B-⑦의 沾解尼師今代(247~261)의 사벌국 점령은 이러한 세력확장의 결과 낙동강 이서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신라는 파사니사금대(80~111)에 安康·慶山을 획득하고 나아가 대구·창녕·합천군 초계면 등지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고, 벌휴니사금대(184~195)에는 소문국을, 조분니사금대(230~246)에는 감문국과 골벌국을 그리고 첨해니사금대에는 사벌국을 복속하여 3세기 중엽까지는 경상북도 일원을 그 세력권 안에 넣은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아달라니사금대(154~183)에 鷄立嶺과 竹嶺의 길을 개척하였다는 기록은<sup>49)</sup> 계림령이나 죽령의 위치 및 그 연대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신라가 일찍부터 이 방면으로의 진출에 적극적이었음을 말해 주는 증거라 생각된다.

한편 경상남도 지역으로의 진출도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시도되었던 것 같다. 위의 B-①에서 탈해니사금대에 이미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을 정복하였다는 것은 후대의 기록이 잘못 편입된 것이라 생각되지만 파사니사금대에 蔚州지역에까지 진출한 기록이 있음으로 보아<sup>50)</sup> 이 지역으로의 진출에도 결코 소홀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가야지역을 확보하는 것은 후대의 일이나 일찍부터 가야와의 전투기록이 빈번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소국들이라 생각되는 浦上八國과의 전투는 이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로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sup>51)</sup>

48) 《三國史記》권 34, 志 3, 地理 1, 聞韶郡條에 “聞韶郡은 召文國인데 景德王이 개명하였다. 지금의 義城府니 領縣이 넷이다” 하였고, 開寧郡條에 “開寧郡은 옛날 甘文小國이다” 하였다.

49) 《三國史記》권 2, 新羅本紀 2, 아달라니사금 3년·5년.

50) 《三國史記》권 34, 志 3, 地理 1, 臨關郡條에 “河曲縣(河西縣이라고도 한다)은 婆娑王 때에 屈阿火村을 취하여 縣을 둔 것인데 景德王이 이름을 고쳤으니 지금의 蔚州이다”라고 하였다.

51) 浦上八國과의 전투기록은 《三國史記》권 2, 新羅本紀 2, 나해니사금 14년조와 권 48, 列傳 8, 勿稽子傳에 보이는데,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물계자전에 骨浦·柒浦·古史浦의 세 나라만이 보인다. 포상 8국이라는 명칭이나 골포·칠포·고사포 등의 國名으로 보아 이들 나라가 강여귀나 해안에 위치하고 있었음은 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가 인근의 소국들을 복속하는 것은 파사니사금~첨해니사금대, 즉 2세기 초~3세기 중엽의 일로 기록되어 있고, 이 뒤에는 지증왕대의 于山國 歸服과 법흥왕대의 가야정복에 이르기까지 소국의 병합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상북도 일원의 진한계 소국의 복속은 3세기 중엽에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로국은 경주에 가까운 이서국·골별국보다 압독국·감문국·소문국 등을 먼저 복속시켰다. 이는 사로국의 발전이 꼭 경주에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차례로 인근의 소국들을 복속시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시의 복속이 곧 영토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 뿐더러, 복속 그 자체도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B-⑤·⑥·⑦에서는 복속한 감문국·골별국·사별국 등의 땅을 곧 郡이나 州로 편입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이 지역들이 나중에 군이나 주로 편제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신라 지방제도의 성립이 지증왕대에 와서야 가능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sup>52)</sup> 《삼국사기》에 보이는 피복속 소국들의 반란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직접 증명해 준다 하겠다.

C-① 悉直이 叛하매 군사를 동원하여 討平하고 그 餘衆들을 南鄙로 옮기었다(《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파사니사금 25년).

② 獐山郡은 祗味王 때에 押梁小國을 쳐서 취하여 郡을 둔 것이다(《三國史記》권 34, 志 3, 地理 1, 獐山郡).

③ 押督이 叛하므로 군사를 동원하여 쳐서 평정하고 그 나머지 무리들을 남쪽으로 옮겼다(《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일성니사금 13년).

④ 沾解王 때에 沙梁伐國은 이미 우리에게 복속하였으나 갑자기 배반하여

---

림없다고 할 수 있다. 李丙燾는 그 위치를 昌原郡(골포)·泗川郡(칠포)·固城郡(고사포)에 비정하고 있으나(李丙燾, 앞의 책, 1976, 701쪽), 이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무리라고 생각된다. 당시의 신라가 가야의 요청을 받아 군대를 보낸 것이라면 포상 8국의 위치는 사로국과 가야 사이인 울주군이나 양산군 일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52) 신라가 전면적인 州郡制를 시행한 것은 智證王代의 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며, 이는 옳은 것이라 생각한다(浜田耕策, 〈新羅の城・村設置と州郡制の施行〉, 《朝鮮學報》 84, 1978, 1~24쪽).

백제에 歸服하였으므로 于老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討滅하였다(《三國史記》 권 45, 列傳 5, 于老).

- ⑤ 伊西古國이 金城을 공격하므로 크게 군사를 들어 막아도 물리치지 못하였다(《三國史記》 권 2, 新羅本紀 2, 유례니사금 14년).

위의 C-①의 기록은 파사니사금 23년(102)에 복속한 실직국이 2년 후에 반란을 일으키므로 이를 평정하였다는 것이고, C-③은 파사니사금 23년에 항복한 압독국이 40여 년 뒤인 일성니사금대에 와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압독국의 복속에 대해서는 C-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地理志에는 祇味王(祇摩尼師今)대에 복속한 것으로 나와 있어 파사니사금 23년조의 기록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파사니사금대의 실직국이나 압독국의 복속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두 나라 모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보아, 지마니사금대의 압독국 복속 기사는 파사니사금대의 불완전한 복속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재차 압독국으로 하여금 복속을 약속하게 했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바꾸어 말하자면 파사니사금대의 압독국과 실직국의 복속이란 실질적인 영토의 병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로국의 위세를 두려워한 소국 지배자들의 복종의 서약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종류의 서약에 대해 사로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와서 항복하였다(來降)’, 또는 ‘복속하였다’고 표현하였으나 실상은 복속이라기보다는 적대행위의 중지나 의례적인 조공의 약속 등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소국의 내부적인 통치질서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었을 것이고, 그 뒤 대내외적인 조건이 변화하게 되면 얼마든지 종전의 서약을 어기고 사로국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C-④의 사벌국이 원래 신라에 복속하였으나 갑자기 배반하여 백제에 歸服하였다는 기록은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예는 C-⑤의 伊西國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기록에서 이서국을 이서고국이라 표현했으므로 당시의 이서국이 이미 신라에 복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서국이 언제 신라에 복속하였는가를 말해 주는 기록은 《삼국사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서국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몇 차례 보이는데, 이 기록들에 의하면 이서국은 제3대 弩禮王 14년(A.D. 37)에 금성을 공격하였고, 그 4년 뒤인 노례왕 19년에는 신라에 복속되었으나, 제14대 유리왕대에 다시 금성을 대거 공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53)</sup> 여기서 유리왕대에 이서국이 금성을 공격하였다는 기록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일치하므로 사실로 볼 수 있으나, 노례왕 14년에 이서국이 금성을 공격하였다는 것은 제14대 유례니사금대의 기록이 잘못 삽입된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sup>54)</sup> 그리고 노례왕 19년에 신라가 이서국을 정벌하였다는 《삼국유사》의 기록도 사실로 보기 힘들다.<sup>55)</sup> 아마도 이서국 정벌의 기록은 어떤 착오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여겨지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삼국사기》에서 ‘이서고국’ 즉 옛 이서국이라 하였으므로 이서국은 유례니사금 14년(297) 이전에 일단 신라에 복속하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sup>5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기 말에 이서국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금성을 공격한 것을 보면,<sup>57)</sup> 이서국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사로국에 복속하였지만 실제

53) 《三國遺事》 권 1, 紀異 2, 伊西國·第三弩禮王條·味鄒王竹葉軍.

54) 이는 아마도 제3대 儒理尼師今과 제14대 儒禮尼師今의 왕명이 비슷한 데서 오는 착각이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제3대 유례니사금을 弩禮王이라 하였고 제14대 유례니사금을 유리왕이라 하였는데, 《삼국사기》의 제3대 유리와 《삼국유사》의 제14대 유리는 동일한 왕명이 된다. 이러한 왕명의 유사성에 대하여는 이미 《삼국사기》의 찬자도 의문을 제기하여, 《三國史記》 권 2, 新羅本紀 2, 儒禮尼師今 元年條에 “古記에는 제3·제14대 두 왕의 이름이 같아 儒理 혹은 儒禮라 하였으니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또 《三國遺事》 권 1, 紀異 2, 第三弩禮王에도 “朴弩禮尼叱今은 儒禮王이라고도 한다”고 하여 《三國史記》의 기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5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로국이 인근의 소국들을 복속시키기 시작하는 것은 적어도 2세기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56) 三品彰英은 이서국 멸망의 기록은 조작된 것으로 보고, 《日本書紀》 권 17, 繼體紀 24년에 보이는 伊斯枳牟羅를 伊西國이라고 보아 실제 이서국이 신라에 병합된 것은 法興王 25년(538)의 일로 추정하고 있다(三品彰英, 《三國遺事考證》上, 東京; 塙書房, 1975, 480~481쪽). 그러나 李炯佑는 이서국은 사로국의 대외 팽창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던 2세기 초엽에 압독국 등과 함께 병합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李炯佑, 〈伊西國考〉, 《韓國古代史研究》 1, 1988, 7~29쪽).

57) 이서국이 동원한 군대의 규모가 상당하였음은 신라가 대병을 동원하여 막으려 하였으나 물리치지 못하였고, 味鄒王의 陰助를 받아 간신히 퇴각시킬 수 있었다는 다분히 설화적인 내용의 기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三國

로는 그 독자성을 조금도 잃지 않고 국가체계를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꾸준히 그 세력을 성장시켜 갔으므로 3세기 말의 신라에 맞설 만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속된 소국이 그 지배층의 세력을 유지한 채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 시기에 있어서 복속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형태는 어떠한가가 문제이다. 추측컨대 초기의 복속이란 진한 연맹주인 사로국에 대해 그 종주권을 인정하고 의례적인 공물을 납부하는 정도의 것이라 생각되는데, 다음의 기록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 D-① 8월에 狴國의 渠帥가 禽獸를 사냥하여 왕에게 바치었다(《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유리니사금 19년).  
 ② 于山國이 귀복하여 해마다 土宜로써 조공하기로 하였다(《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지증왕 13년).

위의 두 기록은 비록 연대의 차이는 많으나 모두 복속한 소국으로부터 공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D-①의 맥국이 지금의 어느 곳인지 또 언제 신라에 복속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유리니사금 17년(A.D. 40)에도 華麗·不耐 두 현이 사로국을 침입하려는 것을 저지한 것을 보면 사로국의 북쪽 동해안 근처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맥국의 왕이 사냥한 짐승을 바쳤다는 것은 일종의 朝貢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D-②는 지증왕대의 이사부에 의한 우산국 정복의 기사인데, 이 때 복속한 우산국이 해마다 土宜(土產物)로써 조공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치 東沃沮가 고구려에 대해 租賦로 貂布와 魚鹽 등의 海中食物을 千里나 저서 날랐다는 기록과<sup>58)</sup> 흡사한 것으로 복속의 의미와 그 구체적인 실상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라 생각된다. 이상의 예로 미루어 보아 2~3세기에 사로국에 복속된 진한 소국들은 자신들의 생산품의 일부를 조공으로 바쳤으나,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史記》 권 2, 新羅本紀 2, 유례니사금 14년 및 《三國遺事》 권 1, 紀異 2, 味鄒王 竹葉軍 참조).

58)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東沃沮.

## (3) 복속 소국에 대한 통제의 강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첨해니사금대의 사벌국 복속 이후 더 이상 소국의 병합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인근 소국에 대한 복속은 3세기 중엽에 일단락지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복속지역을 州·郡으로 편제하는 것은 지증왕대인 6세기 초의 일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약 250년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즉 대개 3세기 중엽까지 진한계 소국들의 명목상의 복속을 일단락지은 신라가 이들 지역을 영토화하는 데에는 약 2세기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의 복속 소국에 대한 지배는 지역이나 복속의 과정 등에 따라 달랐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체적으로 초기에는 구소국 지배층의 독자성을 인정한 채 그들과의 타협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이 채택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방법은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록 후대의 일이지는 하나 복속한 金官國에 대한 처우나 報德國의 지배방식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금관국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E-① 金官國 왕인 金仇亥가 妃와 세 아들 즉 큰 아들인 奴宗, 가운데 武德, 막내인 武力과 함께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왕이 禮를 갖추어 대접하고 上等의 位를 주고, 本國을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아들인 무력은 벼슬이 角干에 이르렀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19년).

② 신라 제24대 진흥왕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해 오므로 왕은 친히 군사를 사용하여 막았으나 적의 수는 많고 이 편은 적어 마주 겨루어 싸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에 그의 형제인 脫知爾叱今은 본국에 남겨 두고 王子 上孫卒支公 등이 신라로 들어가 항복하였다(《三國遺事》권 2, 紀異 2, 駕洛國記).

위의 두 기록은 모두 금관국 멸망 당시의 사정을 전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복속한 소국과 그 지배자들에 대한 처리 방식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E-①의 《삼국사기》에서는 금관국의 왕인 구해에게 본국의 땅을 식읍으로 하사하여 그 지배권을 허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

상은 ②의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이는 대로 구해의 형제인 탈지에게 금관국의 지배를 맡기고 구해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을 경주로 이주시킨 것이 사실일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복속한 소국의 왕에게 본국을 食邑으로 하사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대외적인 선전효과를 노린 것이었고, 실제 내용은 복속국의 지배층을 분산시켜서 원활한 지방지배를 꾀했던 것이다. 신라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복속 지배층의 일부만을 우대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본래의 지배기반으로부터 유리시켜는 한편 더 이상의 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라고 보인다. 이러한 방법은 금관국의 경우에 서만이 아니고 조분니사금대에 복속한 골별국의 왕 阿音夫에게 第宅과 田莊을 하사하여서 경주에 머무르게 하였던 것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 예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방법은 신라가 적극적으로 구소국 지배층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비교적 그 세력이 약한 소국을 대상으로 한 지배방식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이는 아마도 복속된 지역이 금관국과 같이 무력으로 정벌한 지역이거나 골별국과 같이 경주에 아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배계층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통치원리는 唐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그 왕족을 비롯한 상당수의 지배계층을 본국으로 송환한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된다.

이보다 강한 결집력을 지닌 소국에 대해서는 報德國의 지배방식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고구려의 유민이 세운 보덕국의 高延武는 大將軍이라는 관직과 太대兄이라는 고구려 관등을 갖고 있었으며,<sup>59)</sup> 首德皆는 小兄이란 고구려의 관등을 사용하고 있었다.<sup>60)</sup> 또 보덕국에서 일본에 갔던 사신들도 고구려의 고유한 部名과 관등을 사용하고 있는데,<sup>61)</sup> 이는 보덕국을 반독

59) 《三國史記》 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23년에 報德國王 安勝이 보낸 表의 말미.

60) 《三國史記》 권 8, 新羅本紀 8, 신문왕 원년 8월 13일.

61) 報德國 使臣들의 일본 왕래에 관한 기록은 村上四男, 〈新羅國と報德國安勝の小高句麗國〉(《朝鮮學報》 37·38, 1966; 《朝鮮古代史研究》, 東京; 開明書院, 1978, 267~277쪽)에 年表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일본에 갔던 보덕국의 사신들은 신라의 사신과 함께 동행한 기록도 자주 보이며, 前部·後部 등의 部名과 主簿·大兄 등의 고구려 관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립적인 국가로 인정해 주는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62)</sup> 이러한 보덕국의 통치방법은 상고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복속 소국들에 대한 초기의 통치방법과 동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의 이서국이나 사벌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통치방식이 상당히 오랜기간 적용되었을 것이다. 물론 때로는 C-①·③의 실직국이나 압독국의 경우처럼 무력을 사용한 정벌을 행하고 그 餘衆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극단적인 방법도 동원되었겠지만, 이 경우에도 徙民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일부 반란의 주동자에 한정되었을 것이다. 押督國의 故地인 慶山 林堂洞 古墳에서 5세기대의 금동관이 출토되는 것은 압독국의 지배세력이 여전히 온존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반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복속된 소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였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경상도 일원에서 발견되는 5세기 말까지의 金銅冠의 존재이다. 경상북도 일원에서 발견된 금동관은 그 수는 많지 않으나 義城 塔里, 慶山 林堂洞, 大邱 飛山洞, 善山郡 海平面 洛山里 등지에서 발견된 예가 보고되어 있으며, 이 이외에 당시 가야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東萊·昌寧·梁山·高靈·星州 등지에서도 발견되었다.<sup>63)</sup> 이 중 특히 의성 탑리, 경산 임당동, 대구 비산동 등은 이를 각각 소문국·압독국·다벌국 등의 소국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데, 이 금동관들이 발견된 고분의 연대는 의성 탑리 고분이 5세기 이전, 경산·선산·대구 등지의 것은 5~6세기 초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금동관들은 대개 5세기를 경계로 해서 그 이전의 것을 古式, 그 이후의 것을 出字形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5세기 이후에 발견되는 금동관들 중 경주에 가까운 경상북도 지역의 것들은 대개 출자형으로 형식이 통일되

62) 특히 文武王 20년에는 金銀器와 비단 100단을 보내고 왕의 妹를 보덕국왕 安勝과 혼인케 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유하고 있다(《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文武王 20년 3월).

63) 金載元·尹武炳, 《義城塔里古墳》(國立博物館, 1960).

尹世英, 〈韓國古代冠帽考—三國時代 冠帽를 中心으로—〉(《韓國考古學報》9, 1980), 23~44쪽.

鄭永和, 〈林堂洞古墳發掘概報〉(《韓國考古學年報》10, 1983), 23~26쪽.

尹世英, 〈裝身具〉(《韓國史論》15, 國史編纂委員會, 1985), 391~409쪽.

——, 〈古墳出土 副葬品 研究〉(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8), 62~76쪽.

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관해 진한 맹주국이었던 신라가 그들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던 정치세력에게 금동관을 분배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라 보는 견해와<sup>64)</sup> 그러한 金工品을 생산하는 「工人集團」을 신라세력이 직접 통제·장악한 결과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sup>65)</sup>

그런데 금동관의 형식이 5세기 이후에 획일화된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형태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sup>66)</sup> 후자의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동관의 형식상의 통일은 공인집단을 신라가 직접 통제함으로써만 가능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공인집단이 아니라 그보다 상층부의 지배세력에 대한 압력이나 통제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금동관 이외에도 土器가 낙동강 동안에서 형식적인 통일을 보이는 것이나 철제 농기구의 형식 통일은 5세기보다 훨씬 앞서는 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모두 당시의 신라가 각 지역의 공인집단을 개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5세기대의 금동관이 경북지역 각지에서 출토된다는 사실은 이 때까지 경상북도 각지의 진한계 소국들이 그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압독국의 故地라 생각되는 경산군 임당동의 고분에서 5세기의 금동관이 출토되는 것을 보면, 위의 사료 B-②·C-②·C-③에서 보듯이 파사니사금대와 지마니사금대에 복속된 압독국이 일성니사금 13년(146)에 반란을 일으키자 그 세력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 餘衆을 남쪽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압독국의 지배계층은 5세기까지 그 세력을 온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대구지방의 경우 고분의 분포를 보면 石棺墓나 石槨墓의 축조단계에까지는 네 개의 세력 집단이 대등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나, 다음 단계인 石室

64) 崔鍾圭, 〈中古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釜大史學》 7, 1983).

65) 全德在, 〈新羅 州郡制의 成立背景研究〉(《韓國史論》 22, 서울대, 1990).

66) 같은 出字形 金銅冠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양식에는 차이가 많다. 慶山 林堂洞古墳, 昌寧 校洞, 善山 海平面 洛山里 출토된 것은 그 형식이 비슷하나, 大邱 飛山洞, 梁山 夫婦塚, 東萊 福泉洞 1號墳에서 발견된 것은 그 형식이 위의 것들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全德在, 위의 글, 37~45쪽).

墓는 이 중 가장 유력한 집단이었던 飛山-內唐洞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sup>67)</sup> 이로 미루어 보아 대구지방의 소국은 석실묘 축조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비산-내당동지역의 세력이 다른 세 지역의 세력을 압도하고 이 지역의 지배권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대구지방의 소국인 다벌국의 국읍은 비산-내당동에 있었고 이 세력이 석실묘의 축조단계에 이르러서는 다른 세계의 읍락들을 누르고 대내외적으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세력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에서 발견된 금동관이 5세기 무렵의 비산동 석실묘에서 발견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68)</sup> 이 금동관의 존재는 이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의 성장을 말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형식이 출자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벌국의 지배계층이 사로국과 일정한 복속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사료 B-③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벌국은 파사니사금 29년(108)에 신라에 복속하였으나, 이 지역에서 5세기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음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기의 신라의 진한계 소국의 복속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즉 2세기 초의 다벌국의 복속은 명목상의 복속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마도 진한의 연맹주인 사로국과 다벌국 사이의 연맹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 존재하는 네개의 읍락들을 개별적으로 통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로국은 이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집단인 비산-내당동 세력과의 적극적인 유대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67) 대구지방 고분의 분포는 크게 네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큰 墓群을 이루고 있는 達城 부근의 飛山-內唐洞 古墳群에는 石棺墓와 石槨墓를 비롯해 다수의 石室墓가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大明洞 丘陵의 고분군에는 석관묘와 석곽묘가 주를 이루고 여기에 소수의 석실묘가 있으며, 山格洞-伏賢洞 一帶의 구릉 고분군과 斗山洞의 수성저수지 동쪽에 있는 고분군에는 석관묘와 석곽묘가 散在되어 있을 뿐 석실묘는 발견되지 않았다(尹容鎮, 앞의 글, 231~243쪽).

68) 금동관이 발견된 飛山洞의 석실묘에서는 銀製 內冠飾, 귀금속의 장신구를 비롯하여 鐵製 武器類 및 馬具類가 다수 발견되어, 이 지역 고분의 부장품이 양과 질의 양면에서 타지역보다 월등함을 보여 주고 있다(野守建·小泉顯夫, 〈慶尙北道達城郡達西面古蹟調査報告〉(《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3).

침해니사금대의 達伐城의 축조는<sup>69)</sup> 이러한 과정에서 사로국과 비산-내당동 세력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생각된다. 달벌성의 위치는 대구지방으로 비정되는데,<sup>70)</sup> 그 명칭으로 보아 지금의 達城임에 틀림없다고 보인다. 그런데 비산-내당동지역의 고분군은 바로 달성과 인접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sup>71)</sup> 여기에서 침해니사금대에 달벌성을 쌓고 奈麻 克宗을 城主로 삼았다는 것을 지방관의 파견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5세기까지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여 상당한 규모의 석실묘를 축조할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지역에 3세기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克宗은 사로국의 인물이 아니라 대구지역의 인물, 즉 비산-내당동지역의 다벌국 국읍의 主帥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여겨진다.<sup>72)</sup> 이러한 추측이 옳다면 3세기 중엽의 달벌성의 축조는 이 지역에서 비산-내당동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누르고 지배권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사로국의 입장에서는 진한 연맹체의 방위를 위해 변경 지역의 축성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소국내의 특정한 세력과 결탁함으로 인해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산동의 석실묘에서 발견된 금동관의 존재는 다벌국의 지배계층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동시에 이들이 사로국과의 관계를 통해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하겠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 복속 초기의 조공관계를 보다 확실히 하고 복속된 소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로국이 취한 능동적인 조치 중 가장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는 것이 왕의 巡幸이다. 왕의 순행에 대한 기록은 혁거세거서간 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명시한 기록은

69) 《三國史記》권 2, 新羅本紀 2, 침해니사금 15년.

70) 李丙燾, 앞의 책, 1976, 31쪽.

71) 尹容鎮, 앞의 글, 231~243쪽.

72) 이 경우 克宗이 가졌던 奈麻라는 관등은 後代의 粉飾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신라에는 아직 外位 體系가 따로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력가인 극중에게 나마라는 경위를 수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파사니사금 14년(93)에 古所夫里郡에 순행하였다는 데에 처음 보이는데, 上古期の 왕의 순행에 관한 기록을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1> 상고기 왕의 순행

번 호	연 도	지 역	구 분
1	B.C. 41년(赫居世 17)	6部	A
2	A.D. 28년(儒理 5)	國內	
3	81년(婆娑 2)	州郡	
4	93년(婆娑 14)	古所夫里郡	B
5	106년(婆娑 27)	押督	
6	138년(逸聖 5)	太白山	
7	157년(阿達羅 4)	長嶺鎮	
8	162년(阿達羅 9)	沙道城	
9	186년(伐休 3)	州郡	
10	208년(奈解 13)	西 郡邑	
11	227년(奈解 32)	西南 郡邑	
12	235년(助賁 6)	東	
13	264년(味鄒 3)	東, 黃山	
14	284년(儒禮 1)	國西諸城	
15	300년(基臨 3)	比列忽, 牛頭州	
16	469년(慈悲 12)	國西	C
17	481년(炤知 3)	比列城	
18	483년(炤知 5)	一善	
19	488년(炤知 10)	一善	
20	496년(炤知 18)	南橋	
21	500년(炤知 22)	捺已郡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고기의 왕의 순행은 모두 21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 중 자비마립간과 소지마립간대의 것(C 그룹)을 제외하면 모두 3세기 이전의 것이며, 특히 2~3세기에 순행 기록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순행 기록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는 생략하고 A·B 그룹의 순행에서 보이는 몇 가지 특징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A 그룹은 B.C. 1세기에서 A.D. 1세기에 이르는 초기의 순행으로 그 지역이 6部 또는 國內·州郡으로 막연하게 나타나 있다. 이 세 차례의 순행은 구체적인 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왕경 근처의 의례적인 순행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B 그룹은 비교적 순행의 지역이나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격적인 순행이라 할 수 있겠다. B 그룹의 순행 중 몇 개만을 살펴보면 4번의 古所夫里郡은 그 지역이 어디인지 불명이나 구체적인 지역명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순행은 파사니사금대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5번의 파사니사금 27년(106)의 押督에의 순행은 같은 왕 23년에 복속한 압독국이 2년 뒤인 25년에 반란을 일으켜 이를 평정하고 난 2년 후의 일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파사니사금 27년의 순행은 복속한 압독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복속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상고기 순행의 목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로국의 인근 소국 복속이 파사니사금대에 시작된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볼 때 한층 더 뚜렷이 알 수 있다. B 그룹의 순행 중에는 9~12번의 경우와 같이 그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6번의 경우처럼 산천에 대한 望祭가 그 목적으로 나타난 예도 있으나, 그 실상은 복속된 소국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소국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복속관계를 보다 확실히 하자는 목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다만 7·8의 아달라니사금대의 長嶺鎮 순행과 沙道城 순행은 그 내용이 戍兵을 위로한다는 것으로 보아, 아달라니사금 3년과 5년에 있었던 계립령 및 죽령의 개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3)</sup> 그러나 도로망의 개척이라는 것도 신라가 영역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국의 복속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B 그룹에 보이는 순행은 모두 영역의 확보와 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지방관의 파견이 불가능했던 당시로는 왕이 직접 복속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방 지배방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의 왕의 순행에는 적지 않은 臣僚와 군대가 수행

73) 아달라니사금 3년의 鷄立嶺 개척과 5년의 죽령 개척에 대해 그 지역을 경주 인근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崔炳云, 앞의 글, 17~49쪽). 계립령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몇몇 의견이 있으나 현재의 조령에서 약 4Km 떨어진 忠北 中原郡 上莪面 彌勒里에서 慶北 聞慶郡 聞慶邑 觀音里로 넘어가는 하늘재가 계립령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崔壹聖, 〈歷史地理的으로 본 鷄立嶺〉, 《湖西史學》 14, 1986, 27~53쪽).

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sup>74)</sup> 이러한 순행은 일종의 무력의 시위라는 성격도 있었을 것이다. 또 비슷한 시기의 기록에 散見되는 關兵의 기록도<sup>75)</sup>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당시의 지방에 대한 통치가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정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확보한 지역을 수시로 순행함으로써 새로이 복속한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복속민에 대한 민심수습을 꾀하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순행을 통하여 사로국의 왕이 복속된 소국의 지배자임을 과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지역의 주민들과 접촉함으로써 이들에게 하나의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국가의식을 주입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파사니사금대에는 使臣을 10道에 나누어 보냈다는 기록이 두 차례 보이는데,<sup>76)</sup> 여기서 10도가 어떤 종류의 행정구역인지 아니면 도로망을 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또한 지방관의 부재를 증명하는 동시에 그러한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다.

〈李宇泰〉

74) 비록 후대의 기록이나 〈眞興王 巡狩碑〉의 隨駕人名 중에는 大等급의 신료 이외에도 四方軍主 등의 軍官이 보이고 있으므로, 왕의 순행에는 다수의 군대도 수행했을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

75) 關兵에 관한 기록은 순행처럼 자주 보이지는 않으나 최초의 기록은 파사니사금 15년에 “8월에 關川에서 열병하였다”는 것이다. 이 후 일성니사금 5년(138)·미추니사금 20년(281)·실성니사금 14년(415)·자비마립간 6년(463) 등에 關兵한 기록이 있다. 특히 최초의 열병이 파사니사금대에 보이는 것은 최초의 소국 병합이나 본격적인 순행이 同王代에 시작된다는 것과 아울러 생각해 보면 열병이 소국의 지배와 무관하지 않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76) 《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파사니사금 11년 7월 및 29년 5월.